8 마을주민 생애사

8. 마을주민 생애사

8-1 마을 할아버지의 살아오신 내력

1)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일밖에 없어!!

박0선 어르신

4살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대성동 마을로 들어온 후 지금까지 터를 잡고 살고 계신 박0선 씨를 생애사 기록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마을의 최고령자이자 두 아들이 장성하여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일을 보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마을 일을 맡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농사 일만 했다고 하는 박0선 씨에게서는 오랜 세월, 대성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남다른 삶의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1·4 후퇴를 보고 청년시절에 6·25를 직접 겪으면서 남의 인삼밭 품팔이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자신의 농토를 개간하는 등 경제적

거실 풍경

인 기반을 갖추었고, 지금은 아들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 땅의 모범적인 부모의 사례를 보인 삶을 살아오셨다. 그에게 대성동은 어린 시절 밥을 먹고살기 위해 들어왔던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 그 이상이 되었다.

(1) 내 태어난 곳과 부모 형제

"나는 저기, 진서면 금릉리 안말에서 태어났어. 산골이야. 거기서 살다 4살 때 여기(대성동)로 왔지. 여기는 고려인삼, 유명하잖아요. 그 인삼밭이 많아서 품 팔을려고 들왔어. 어머니가 여기 분이시라…"

박0선 씨의 부친은 무안 박 씨로 본인 나이 49세, 박0선 씨 나이 9살에 대성동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이유도 잘 모르고 있다. 모친은 강릉 김 씨로 대성동이 고향이었다. 본인이 83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당시로는 장수하셨다고 할 만큼 사신 것이었다.

박0선 어르신 부부와 가족 사진

형제는 누나 한 분, 형님 2분이신데 5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사이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다.

박0선 씨는 첫 아이를 29세에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슬하에 모두 아들 둘, 딸 둘을 두었다. 자제들은 모두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와 금촌에 있는 금촌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때는 마을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금촌으로 중학교를 다녔다. 아들 둘이 금촌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밥을 해주고 바라지를 해주었다. 딸들이 다닐 때는 금촌에서 둘이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마쳤다. 큰아들은 파주공고를 마치고 마을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네 명 모두 중매로 출가를 시켰다.

큰며느리는 서울에서, 작은며느리는 성남에서 시집을 왔다. 지금 큰 아들은 서울 불광동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작은 아들 역시 문산에서 살면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큰딸은 서울로 출가하여 회사원인 남편과 잘살고 있고 둘째딸은 강화도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 모두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

큰며느리, 작은며느리는 모두 결혼 후 3년간 마을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다가 분가를 시켰다. 분가시킬 때 집을 사주었다. 그리고 박0선 씨는 몇 해 전에 작은 텃밭 정도만 본인 앞으로 남겨두고 농사지을 땅을 모두 두 아들에게 똑같이 반씩 나누어 물려주었다. 딸들은 본인들이 벌어서 시집을 갔는데도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

8·15 해방 후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터는 큰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면서 다 같이 살고 있다. 6·25 휴전 당시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이 버리고 가 주인이 없는 땅은 물론 새로운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당시에는 본인하기에 따라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소로 쟁기질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소가 귀해 남의 소를 빌려 농사를 짓다가 돈을 벌자 소를 사서 농사를 지을 정도가 되었다. 당시 소 한 마리는 농토 30마지기 정도로 비싼 값이었다. 박0선 씨도 결혼 후에는 자신의 농토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남의 삼밭일이나 농사를 지어주는 날품을 팔았던 것이다.

(2)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당시 여기는 학교가 없어서 형님, 누님은 학교를 안다녔는데 박0선 어르신은 장단국민학교를 다녔다. 진동면 동파리 가는 길에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모여 거의 15리길을 걸어 다녔다. 6·25전쟁이 나기 전에 학교에는 일본인 선생이 있었다. 음악, 체육시간 같은 과목이 당시에도 다 있었다.

"한국말 하면 매 맞고 꿇어 앉았더랬어요. 새벽밥 먹고 가서 뒤에서 자고, 책가방 없이 보자기 어깨에 메고 뛰어다녔지."

그가 초등학교 6년 때 해방이 되고 중학교에는 진학을 하지 못했다. 집안 사정이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형편이라 어려웠던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는데 어렸을 때라 삼포에서 심부름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는 가족들이 모두 삼밭(인삼밭)에서 날품을 팔 때였다.

"내 어렸을 때는 17살 때까지 개성에 다녔지. 한 5키로 반, 10리 조금 넘어. 한나절이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해. 심부름 시키면 갔다 오는 거지. 개성사람들이 나와서 인삼밭을 하니까 개성에 인제, 언제 인삼 캔다는 이런 거, 전달 심부름 다녔어. 그때는 개성이

큰 도시였어, 서울 다음으로. 주인이 점심 주면 먹고 오기도 하고. 개성은 전부 한옥이랬지. 개성 송악산도 경기도였고 그 너머는 황해도 개풍군, 개성 군사분계선 너머는 개풍군이고 이남은 장단군. 개성사람들을 다 바꿨다 그래, 함경도 말 쓰는 사람들로."

"개성 장을 많이 봤지, 장날만 아니고 계속 있는 장이 있었어. 생활필수품 다 있던 큰 장이야."

(3) 해방과 6.25전쟁에 대한 기억

이 마을은 8·15 해방 전에만 해도, 당시 60호가 넘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당시 박0선 씨는 6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해방 전에도 이 마을에는 일본인이 없었으나 징병에 끌려간 사람은 있었다. 해방이 될 때 여기서도 만세를 부르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18세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당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박0선 씨가 이 마을에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은 전쟁 때 고생했던 거라고 한다. 6 · 25 전쟁이 났는데 마을에서 피난을 가지 못했던 것이다. 마을에는 미군들, 한국군 정보기관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마을사람들에게 밤에 보초를 서게 했다.

"쟤네들, 동그랑산에 중공군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고생 참 많이 했지. 6 · 25 전쟁 통에 산 사람은 나하고 김0란? 둘 밖에 없어. 그때는 먹지를 못했어. 보초도 직접 서기도 하고… 피난을 못 갔는데 6·25나는 것도 몰랐어. 송악산에서 새벽에 탕탕대는 소리 조금 나는데 나중에야 전쟁인지 알게 됐지, 다음날에. 1·4후퇴 때는 다 피난 갔는데 나는 안 나갔어. 가지고 갈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안 나갔지."

"18살 때 6·25나서 인민군들 들어와서 밥해주고, 한참 모내기하고 할 땐데, 전쟁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일하고… 쟤네들이 이쪽군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청년단, 한국군이라고 모집해서 거짓으로 데려갔어. 나는 휴전되기 전에 여기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여기 있었지. 한 5집 정도가 미처 피난을 못 갔어. 6·25때는 전쟁난지도 몰랐어, 이곳은. 도로에 인민군들이 깃발 들고 가는 거 보고 전쟁난지 알았지… 휴전되고 피난시켰을 때 여기 휴전 당시 그 시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게 했지. 휴전 때 한 1개월 정도 나가있다가 금방 사람들 도로 다시 들어왔지. 초가집 같은 움막이 그대로 있었어. 한 20 여 호 정도 마을이 그대로 있었어. 노인들이 조금 농사짓고 연명했지. 정보기관에는 밤에 보초 선다고 마을 젊은 사람들이 당시 13~4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다 죽고 산 사람들은 김0래 박0선… 나중에 미군 이 마을에 있었어, 정보기관. 그 사람들이 망을, 전체 보초 서는 것을 해. 마을 안에 정보기관 건물에 총 들고 보초 섰지. 하루에 보초 1곳에 2명씩 나가서 밤새 1명이 12시까지 교대해서 밝을 때까지. 마을 7~8곳 정도 보초서는 곳이 있었어. 휴전 전에 한 2년 정도 보초를 서기도 했지. 총은 정보기관에서 받아 보초서고 다시 갖다 주고…"

2013년에서야 받은 호국영웅기장증

"그전에 보초 설 때 내 비번 날 기관 사람들하고 자는데 중공군이 들왔어. 중공군이 우리들 자는 방으로 들어 온 거야. 어두우니까 전깃불 비춰져 중공군이 따발총을 쐈어. 다른 아이가 손을 맞았어. 내 옆에 자는 사람은 목을 누르고, 나는 가만있는 데 다른 놈이 나한테 오더라고, 내 팔을 잡고 문 있는 데로 끄는데 내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나가면서 그 놈을 방안으로 처넣고 도망갔어. 그 틈에 옆에 목 눌렸던 사람도 튀쳐 나와 살았어. 안 붙들려 갈려고 나오면서 양문 잡고 방안으로 차 넣고 도망 간 거지. 그 후에 2달 만에 휴전이 됐어. 그 와중에, 할머니 한분이 걔네들이 버린 수류탄에 돌아가셨어."

박0선 씨의 기억 속 전쟁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을 들어도 매번 같은 내용이었다.

(4) 구식으로 한 혼례

박0선 씨는 27세에 부인 김0연 씨와 결혼했다. 혼례식은 족두리 쓰고 구식으로 남자네 집으로 와서 올렸다. 부인은 파주 월롱면 능산리에서 22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왔다. 남편인 박0선 씨와는 5살 차이가 났다.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졌는데 여자 쪽, 남자 쪽 중매쟁이가 따로 있었다. 남자 쪽 중매쟁이는 최0정이라고 여기 마을에 살았던 여자였다.

"여기는 결혼하기 전에 패스 만드느라 신원조회 수속 밟느라 결혼 전에 금촌 가서 (여자를) 만났어. 처 할머니와 부인될 사람이 같이 나왔더라고. 장인이 금촌서 살았는데 그때 경찰이었어. 장인 집에서 만났는데, 괜찮게 살더라고… 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혼수는 머 이부자리 혼수지. 본인 옷, 시어머니 치마저고리 옷…, 그때는 '신방지킴이'라고, 신혼부부 방에 앉아있고 밖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런 거가 있었지. 처음 처가에 가면 '3일 푸들이'라고 결혼하고 3일 있다가 처가에 가면 색시 훔쳐갔다고 달아놓고, '달아 먹는다고' 발목을 천으로 묶어서 매달고 마른 북어로 발바닥을 때린다고.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다하면 안 때리는데… 왜 색시를 훔쳐갔냐~ 머, 그런 거 등등… 장모가 술상 내주고 때리지 말라고 말리고, 신부는 방에 있지, 같이 안 어울리고."

'3일 푸들이'이라고 처음 3일 후에 친정 갈 때 찰떡 해가지고 가. 그때는 3일 만에 친정 가서 (마을에는) 1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때라 자연히 1주일을 있다가 들왔어. 나가면 일주일 있다가 들와야해. (처가가) 농사짓는 집이라 일 거들고 있다가 돌아올 때 찰떡 해 가지고 와서 노놔 먹지… 혼례식하고는 바로 같이 살았지. 당시에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만 계셨지."

(5) 부인 김0연 씨의 시집살이

부인 김0연 씨는 파주 주내 월롱면에서 이 마을로 시집 온지 54년이 된다. 동네 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김0연 씨가 마을에서 시집살이를 제일 심하게 했다고 말한다.

"내가 시집온 게 54년인데, 스물 둘에 왔는데, 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으로 다녔어요. 스물 둘에 와서 한 십년은 거진 그렇게 다녔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저 월요일허구 수요일에 또 댕기다가 그러다가 매일 또 댕기게 됐어요. 여기 시어머니, 시집오니깐 뭐 시어머니가 하난데… 친정에서 인제 그릇을 그냥 이런 통 뭐야, 대박, 저기다가 부시잖아, 옛날에. 그런데 여긴 다르더라구. 그런데 인제 거기다 그릇을, 친정에서 허든 버릇으로 왈가닥 왈가닥 막 부셨지 뭐야. 그랬더니 그냥 그릇 죄 깨트리구 버릇없이 그렇게 막 부신다구 막 야단을 해서 살살 부셨어, 아주. 옛날에는 다 그 사발룻이 돼서. 그래서 그 댐서부터는 가만히 들구 하나씩 부시구 하나씩 부시구 그랬지 뭐. 무서왔어. 막 그러다가 한번 혼났잖아. 아유, 막 그냥 말이 이년저년이야. 그냥 저, 얼마나 사나운지 말도 못했어. 아유, 옛날에는 뭐 아들허구 둘이만 해 드리구 난 땅에서 먹었지 뭐. 시집살이 정말 되게 했지 뭐."

"우리 엄마가 저기 주내, 저기 뭐야, 거기서 바구니 겉은 거 이것저것 팔러 대니다가 여기 딸 보낸 엄마가 거기 있어, 주내. 그래 가지구 이렇게 둘이 연결, 연결해서 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다구 그래 가지구 정말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아주 기가 맥히지 뭐야."

"옛날에는 새벽에 인제 한 시에 일어나서 밥 먹구 저기 마당질을 해요. 밤중에 인제, 타작을 하면 또 새벽에 밥해서 먹구, 아침 먹구, 새참 먹구, 점심 먹구 저녁 곁들에 먹구, 저녁 먹구 여섯 번을 해야 돼. 한 시에 먹어. 그러구 인제 또 탈곡기에 털며는 아침 훤하면 아침덜 잡숫구, 그리구 또 새참들 잡숫구, 또 점심 잡숫구, 저녁 참 잡숫구 저녁 먹구 그렇게 끝나는 거야. 집집마다 다. 밤중에 일어나. 밤중에 잠도 못 자. 그리구 한 시믄, 그 때 한 시에 일어나서 밥 하며는 좀 아마 열 두시에 일어나며는 밥 하믄, 한 시에 일어나 깨러(깨우러) 댕겨 인제, 그 품앗이 하는 사람덜을. 그렇게 해가지구선 밤중에 터는 거야. 그냥 탈곡기에다가. 그러며는 그냥 하루에 한 이삼백 가마 터는지 [이0순 : 불두 없어서 그냥 철사에다가 솜방맹이 달아서 석유에다가 담궈서 불 밝히고…] 낟가리를 이렇게 똥그랗게 해 놓구서, 이제 품앗이를 낼은 누구네, 누구네 그렇게 해며는 밤에 또 일어나서 [이0순 : 그러면 또 떡 해먹느라고 집 모주리 댕기면서 절구루다 빻아서, 오늘은 시루떡, 낼은 저 집이서 또 쪄먹구 아휴, 밤낮 없이 그렇게 했어] 그 전에는 떡두 집집마다 했는데, 지금은 떡두 하는 집이 읎어. 고사떡 그 때 한번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물지게루다 또 물 길어다가, 쇠죽물을 해구 그러구 밥 물 허구, 점심 먹군 물 길어다 붜야 한 독허구. 그러구 나면 세시 네시 돼, 겨울이믄. 물 길어다 노면 또 저녁할 때 돼. 해가 짧아서. [이0순 : 녹두 나물, 콩나물 다 길러야 먹잖아요. 물이 없는데, 밭 매구 점심 먹으로 들어와선 그거 다 물 줘 놓군 또 부지런히 매러 가구 참 …]

두부 해야지 또. 두부 헐라면 맷돌에다 갈아서 그 놈의 걸 죽기만 생각허구 또 해야지.

2008년에 금촌에서 치룬 고희잔치

아유, 또 콩나물 기르구 두부 허구, 그런 게 반찬이야. 김치허구. 시장두 보러 갈 새두 없구.[이0순 : 두부 허구, 빵 찌구 저녁에 못 찌러 가서 모 찌구 와서 그냥 낼 먹을 두부 그냥… 아유, 어디 가서 사올 데두 읎구 그냥…] 맷돌에 갈아서 다 그냥 허는 거야. 일만 했다허믄 그냥 다, 아휴. 그래두 또 밭 매러 가야지 밥 해야지, 아일 길러야지. 밤새두룩 일해두 끝이 안나. 농사 치다꺼리 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 밭할 때는 또 콩 심으러 가야지. 별거 다 해야지. 밥 해야지. 요즈음 일이 심하다 해두 아무 것도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새가 어딨어. 농사지을 때 얼마나 바쁘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이0순 : 지금은 농사꾼들 색시 와도 하나두 안 해요. 아이만 낳으면 학교 가르키느라고 문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학교 되믄 나가잖아요 중학교 없으니까. 그러니깐 엄마들은 다 편한 거야.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다 가르키고. 신랑들은 아침이믄 들어와서 일하고 저녁이믄 나가고… 그래도 이제는 고희라고 잔치도 하고…"

(6) 세시명절과 한 해 살이

박0선 씨는 위로 형님이 문산에 거주하고 있어 형님 댁에서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다. 명절 차례도 큰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세시명절이나 제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연중 정월이면 세 개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윷놀이를 하고 봄이면 노인회에서 여행을 간다. 5월 단오나 6월 유두에는 예전에는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간다. 7월 칠석에는 절에 가고, 복날이면 마을 부녀회에서 삼계탕을 해주기도 하고, 8월 추석이면 큰 형님 댁으로 가서 차례를 지낸다. 송편은 지난해까지도 아이들이 집에서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다. 9월 중구는 그대로 지나가고 10월 상달에는 집 고사를 지낸다. 11월, 12월에는 겨울준비로 난로에 땔 나무를 해 놓는 게 일이다.

박0선 씨도 어렸을 때는 자치기.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자치기도 두 가지 놀이 방법이 있다. 땅을 파놓고 새끼를 넣고 아범으로 떠올려서 쳐가지고 멀리 나가는 게 이기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새끼를 손으로 띄워서 멀리 치는 방법이 있다. 나무는 참나무로 만들어서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여나무 명씩 가위 바위 보로 편을 갈라서 논다. 놀이 도구는 다 같이 모여서 장만하는 것이며 한판에 4~5명씩 한다. 특별한 내기는 없었다. 제기차기. 자치기도 겨울에 농한기에 많이 하던 놀이였다.

(7) "매일 먹고 일하는 게 단데 머~"

박0선 씨는 매일 먹고 일하는 게 전부였던 터라 마을일은 맡아하지 않았다. 날 밝으면 일하러 나가는지 알고 해지면 자는지 알고… 그게 전부였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농사를 지은 기억 밖에 없다.

6·25전쟁 후 처음에는 마을에 주민들이 못 들어왔다가 휴전 당시에는 주민들이 들어와 주인 없는 땅을 개간했던 것이다. 이 마을의 경우 전쟁 전에는 인삼밭이 많이 있었다. 그전에는 밭이었는데 80년도에 주택을 지으면서 마을 앞을 개간하여 지금의 논이 되었다.

인삼농사는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했던 농사였다. 개성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마을 사람들은 품값을 받는 정도였다. 당시 품값은 3원~5원. 보통 3원을 받았다. 그게 하루 일당이었던 것이다. 당시 쌀 한가마니에 3천원이 안 되던 때였다. 지금 20만 원

가량이 당시 3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박0선 씨도 논농사가 주였으며 3월에 논가는 일을 시작으로 모를 길러서 못 판을 내기 시작하면 일 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린다. 당시만 해도 손으로 직접 짓는 농사였다. 모내기는 농사 절기에 맞춰 날짜를 정해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였는데 하루 7~8집을 할 때도 있었다. 마을 전체로 조직된 것을 없었고 몇몇 집들끼리 서로 날짜를 정해서 했다. 4월에 모심기를 하고 한 달 정도 농사일에 여유가 있다가 6월이면 김매기를 해야 한다. 김 맬 때도 품앗이로 한다. 품앗이를 할 때 20~30명이 모여 김매다가도 꽹과리 치고 놀고 하는 것을 왜정 때까지 구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6월에는 '여김'이라고 하여 논 호미로 땅을 파서 엎어두고 7월에는 손으로 풀을 뽑고 본격적인 김매는 일을 한다. 8월에는 형님 댁으로 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9월에는 벼 베기를 시작한다. 벼를 베어 단으로 묶어서 논두렁에 말려서 집 마당에 쌓아놓고 탈곡하는 것도 품앗이로 진행한다. 벼는 태질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발틀로 털면 탈곡이 쉽다. 볏단을 묶어서 메통을 갖다놓고 그 위에 볏단을 치면 쌀알이 떨어진다. 이걸 바람개비로 불어서 낱알을 가려 가마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다. 바람개비는 지금 선풍기식으로 함석 날개 4개를 달고 손으로 돌려서 짚풀과 쭉쟁이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것을 가마니에 담아서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한다. 농사를 많이 할 때는 100~200가마 정도가 된다. 손으로 할 때라 많이 하지 못했다. 농사는 안팎이 같이 하는 일이라 부부가 고생을 많이 했다.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품앗이로 해. 모찌기도. 모 뽑아서 짚으로 묶어서 져다가 논에 옮겨서 모내는 거야. 7월에는 조금 한가한데, 여기서는 7월에도 놀 틈이 없어. 소 기르니까. 마초풀 깎아 말려야지, 놀 새 없었어. 겨울에는 섣달까지 눈 오면 쓸고 거기서 타작하고 그랬어. 농사 진 것은 금촌 후방으로 수송하고. 미군 트럭으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에 미군트럭으로, 나머지 싣고 가서 쌀 팔고. 쌀 1가마 겨울에 가지면 여관에서 먹고 잤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1주일이 좀 쉬는 때지. 요때 좀 놀고… 술이나 먹고 놀았지 머. 겨울 2~3달은 편하지, 마을에서 술이나 먹고. 각자 저 집에 술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이집 저집 다니면서 먹고 그러지. 솔잎 넣고 술 담으면 맛있었어. 동동주, 처음에는 약으로 먹었는데…"

"나 농사질 때는 11월까지 타작 했어요. 농사는 많고 다 손으로 해야 하니까. 지금은 벌써 다 털어치우고 건들건들하지만… 2003년도에 다 털어치웠지. 옛날에는 벼낼 때 낫 가지고 손으로 꼰지르면 손톱이 닳아서 손톱을 안 깎아. 한 보름 앞두고 일부러 손톱을 길렀지. 손으로 해야니까, 닳아서 피가 나니까 손톱이 있어야지."

"요즘이야 머, 10월 추수 끝나면 그 후부터는 먹고 놀아. 경로당 와서 술이나 먹고 놀지. 고스톱만 치고 술이나 한잔씩 먹고 놀아."

(8) "내가 소달구지로 벌어 논 거 까먹는데, 기계 때문에…"

두 아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맡아서 짓고 있고 본인은 농사일 뒷바라지를 해주는 정도이다. 요즘 농사는 대부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다. 기계 종류는 봄에 이양기, 트랙터, 콤바위, 붐누기 그리고 풀 깍는 예초기, 물푸는 딸딸이 등이 필요하다. 추수 할 때 쓰는 콤바인은 몇 천 만원씩 농협 융자를 받아서 사야할 정도로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 전쟁 당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우리도 다들 피난 나갔다가 여기 양쪽에서 마을 하나씩. 기정동, 여기 대성동 이렇게. 그때 피난 나간 사람만, 민사철에 기록된 사람만 여기 복구된 것이지. (다시 들어와서) 괭이로 다 파면서 땅을 만들어 농사지었지. 자기가 그때 개간한 땅은 지금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75년도에 정부에서 개간해준 게 있고, 80년도에서부터 농지정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지. (마을 한 사람당 농토 배분은) 적은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은 많고. 난 현재 아들에게 물려줬어. 1,800 가마 정도 돼, 한 해에. 아들 둘이서. 많은 사람은 2,500, 3,000가마 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애 낳아서 초등학교만 여기 다니면 그 담에는 문산 금촌 거쳐서 올라가니 두 집 살림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 50년 전엔 민사철이라고 해서 미군들이 트럭에 실어다 놓으면 일주일 동안 금촌서 살아야 여길 들어올 수 있었지."

(9) 박0선씨가 기억하는 마을 대동굿과 집 고사

이 마을에도 서낭당은 있었다. 마을 대동굿을 지낼 때면 집집마다 비용을 추렴해서 무당을 불러와 2~3일씩 굿을 하곤 했다. 2~3년에 한 번씩 지내던 것인데 6 · 25사변 후에 사라졌다. 서낭당에는 그 사람(무당)이 떡 해놓고 절을 하였다. 서낭당은 마을 길목에 있어서 늘 상 지나다니는 곳이다. 박0선 씨는 정월 보름이면 쌀을 추렴해서 마을사람이 제를 지냈다고 기억하고 있다. 모친이 도가를 맡아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뚜렷하다. 서낭당 고사를 지낼 때면 도가에서 쌀을 추렴하여 시루떡을 찌고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렸다. 떡도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과일도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대동굿은 2~3일간 지냈으며 서낭에는 그 해 수가 나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밥을 해놓고 기원을 한다. 서낭댕이 에는 무당이 개인에게 시키면 개인적으로 가서 기원하는 곳이었다. 산 위에 있었는데 길을 내면서 없어졌다. 마을 넘어오기 직전 삼거리 콩밭 위에 있었다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당집은 없었고 벚나무만 있었는데 여기를 서낭댕이라고 불렀다.

"서낭댕이에 옷 같은 거 걸고 이름쓰기도 하고 그랬어, 개인이 지내는 거지…"

대동굿은 5년에 1번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역시 오래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대동굿을 했던 마을 공터 자리만 남아있다. 당시 도가집은 구진우네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굿을 하기 전에 도가에서 한 거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도갓집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집이 맡아서 했다.

"집 고사? 지내지. 음력 10월에 마누라 혼자 하는데 시루떡, 삼색과일 차리고 나는 구경은 하지. 우리 마누라는 그냥 빌면서 절하면서 그럽디다. 낮 1시 이후에 하는 건데… (떡은) 지금은 방앗간에서 해 와요. 시루떡 한 시루, 하얀 시루떡 3개. 절에 다니기 때문에 절에서 날짜 잡아. 우리 고사 며칠이 좋겠냐고 물어보면 스님이 가르쳐줘."

박0선 씨의 모친은 광탄에 살 때부터 고령사라는 절에 다녔던 터라 부인도 지금까지 그 절에 다니고 있다. 며느리들은 아직 다니지 않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다니자고 하면 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시어머니가 다니자고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며느리들한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 요즘 사는 재미

박0선 씨는 술을 좋아해서 집에는 늘 막걸리가 있었다. 부인이 막걸리를 잘 담갔다. 당시에는 누룩이 없어서 약으로만 만들어 먹었다. 약은 '이시도' 라는 것이었는데 빨리 숙성하는 성분이 있었다. 이 약으로 막걸리를 내렸기 때문에 도수가 독했다. 지금처럼 누룩을 넣고 하면 덜 독하다. 그러나 언젠가 부터 소주를 마시기 때문에 막걸리는 담지 않는다.

박0선 씨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을에서 아플 때는 금촌 도립병원에 연락하면 앰블런스가 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다. 박0선 씨는 28살에 맹장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7월 낫으로 논두렁을 깎던 중에 배가 아파 민사처에 연락을 했더니 금촌도립병원에서 차가 들어와 입원하고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다.

70대에 농사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논에 물 봐주고 뒷바라지나 한다고 하면서도 하루가 바쁘다고 말한다. 농사는 두 아들이 기계를 가지고 모두 하기 때문에 큰 일이 없다. 농사일이 바쁜 때면 아들들은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일을 한다. 추수 후에는 부모님댁 창고에 벼 몇 가마씩을 주는 게 전부라고 하면서 흐뭇해하신다. 부인은 지금도 고추, 깨, 콩 등 밭일을 해서 둘이 팔아먹고 산다고 하면서 웃으신다. 그런데, 마을에 박0선 씨 또래가 없다. 대부분 70대라 "그 아이들하고 술을 먹는다."고 하면서 또 웃으신다. 마을에서 누가 집에 맛있는 안주 해놓고 부르면 또 모여서 먹고 하는 데 꼭 소주만 마신다. 막걸리는 젊어서 너무 먹어서라는 말을 남긴다.

"요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마을 돌아다니다가 아침밥 먹고 6시 반 정도에 마누라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먹고, 배추밭, 고추 따고, 점심 12시에 꼭 먹어. 마누래가 꼭 챙겨줘. 고추 따고 말리고 저녁에 티비 보고…"

박0선 씨는 젊었을 때도 외부 마을활동은 잘 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높아 문산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정도다. 장은 주로 장은 문산장을 보러가는 데 버스가 하루 3번 다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크게 불편한 건 없다.

박0선 씨가 이 마을에 살아서 나쁜 것은 교통이 안 좋은 것이고, 항상 전쟁에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것이며 좋았던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 시달리고 고생바가지로 하고, 땅 일궈서 자식들 기른 것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전쟁이 나면 민정반에서

대피를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쟁이 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 그런 전쟁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예전부터 '흉년이 들면 산에 포도가 많이 열린다.'고 했다. '벼농사가 제대로 안되면 산에 열매가 잘 열리고 벼농사가 잘 되면 산에 열매가 잘 안 열린다.'는 말과 같다. 금년 농사는 평작이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유난히 도토리가 많이 열려 할머니는 도토리 줍기에 바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주워놓은 도토리를 옮겨주러 가셔야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해가 있어야 길도 간다고, 젊었으면 여러 가지 했겠지만 지금 내가 뭘 하겠냐!"

8-2 마을 할머니의 살아오신 내력

1) 대성동마을의 토박이, 걸어다니는 옥편 김O예 씨

[여, 1938년생, 77세, 호랑이띠, 강릉 김씨(남편 故 최O득 씨/1932년생)]

김O예 씨는 강릉 김씨였던 김O수 씨를 아버지로, 그리고 박O순 씨를 어머니로 하여 태성[대성동]에서 태어난 토박이이다.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은 어렸을 때 홍역으로 죽었고, 10살 아래인 여동생은 가정을 이루어 현재 신월동에서 살고 있다. 불구였지만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던 아버지는 이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6·25전쟁 때 이북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휴전 직후, 6·25전쟁 때 보초를 서다 부상을 당했던 경주 최씨 최O득 씨와 결혼하여 4남 2녀를 두었는데, 남편은 80년대 초 당뇨로 세상을 떠났다. 큰 아들은 현재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고, 둘째 아들은 금천에서 대성동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다. 큰딸은 미국에서, 둘째 딸은 금천에서 잘 살고 있다. 막내는 아들 쌍둥이였는데 그 중 한 명은 사망했다. 김O예 씨는 현재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지만, 막내 아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문산에 나가 살면서 매일 대성동으로 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동네의 친인척들은 O식이 어머니인 김O예 씨가 이곳 토박이여서 마을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기억력도 좋으며 이야기도 잘 하니까 꼭 만나보라고 추천을 해주었다. 또한 마을에서는 김O예 씨가 '걸어다니는 옥편'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생일이나 제삿날 등을 정확하게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은 그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살아온 이야기라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와 할 이야기가 아주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몸은 좀 작은 편이지만, 매우 총기가 있고, 강단이 있으며, 부지런한 편이다. 김O예 씨의 구술생애담을 통해서는 대성동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6·25전쟁의 참상 및 그 후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알 수 있다. (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아버지를 닮아 재주가 많았던 딸,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질 닮았어요. (그럼 재주가 많으시겠어요?) 난 재주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재주 있어봐야 뭐해? 그냥 뭐 내가 좀 있어서, 조금만 배운 사람 같으면 양장 같은 거 했어.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안 뱄는데도 해요. 바지 같은 거도 하고. 쓰봉 같은 거도 하고. 윗도리도 잠바도 다 해. 근데 안 뱄어도 다하는데, 우리 부모 내가 잘 만났으면, 그래도 쪼금 뱄으면….

그런데 내 나이에 그전에 삼학년 사학년 때 6·25(전쟁)났잖아. 38년생이니까. 근데 나는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문턱에도 못 가봤어. 그래 지금두 사실은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저기한데,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냥 다 애를 낳구, 첫아이를 낳구 자습을 해가꾸 구구단 같은 거 배고. (그러면 6남매를 다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이구 뭐구 다 내가 배서 깎아서 키우구.

그냥 그 때는 후방에를 못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댕겼거든. 일주일에 인제 한번 댕겼는데, 여기서 나가면 일주일 있어야 들어와. 그래니까 힘들었어 좀. 그래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머리 깎자구 학교 댕기는 걸 데리구 댕길 수는 없잖아. 그래니깐 기계를 사다가 내가 다 깎아주고, 우리 아버이[남편]도 내가 다 깍아주고 그랬지.

하여튼 그랬는데, 재주 많은 놈이 저녁 멕이가 없대잖아. 지금은 재주가 있어야 좋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 미장이허믄 잘 산다구 그랬어. 미장이. 흙 바르는 거. (옛날에 흙집 짓고 살아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배 가지구 돈두 벌구 우리집두 고치구 그랬어요."

(2) 아버지에 대한 기억 : 불구였지만 재주가 좋았던 아버지, 6·25때 잡혀가 생사를 몰라

① 강릉 김씨 나의 아버지

"(아버님은 먼 조상님부터 여기에 사신 거죠?) 예. 여 강릉 김서방네. 우린 원래가 그 전에 저기야. 옛날서부터 손이 놀아가지구[귀해가지구] 우리 할아버지두 양자 왔대요. 그런데 양자 왔는데, 두 집이서 다 손이 없어요. 박O선이네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하구 동기야. 박O선 씨네 어머니가 강릉 김씨야. 그래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동기간인데, 거기도 손이 놀구 우리도 손이 놀구—. 우리 아버지두 아들이 일찍 죽어서 없었는데, 양자를 드릴래두 드릴 사람이 없어 못헌 거야."

② 불구였지만 재주가 좋았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불고예요. 불곤데, 우리 엄마가 좀 모자라요. 불고니까 좀 모자란 사람 얻었지 뭐야. 근데 아버지가 불고라두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좋아서 물레, 수레 뭐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쟁기 뭐 이런 거를 잘 만드셔. 재주가 좋으셔. 그랬는데 그렇허믄 또 쌀을 좀 벌어오시구.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쟁기 같은 것도 논 가는 쟁기, 목화 뜨는 쇠, 물레 실 뽑는 물레, 하여튼 이 방두 그전에는 왜 구들장 놔서 불땠잖아요? 딴 사람들이 놓으면 그것두 잘 안 들어가구, 불두 잘 안 들어가구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놓으면 잘 들어가요. 하여튼 재주는 좋았어요. 재주는 좋았는데, 손이 그래가지구 왼손으로 다 하세요."

③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장단역 시장

"여기서 옛날에 장을 보면 장단역으로 갔댔지. 장단역에 가서 옛날에 아부지가 가자 그래서 가믄, 그 전엔 겨란을 나서 이게 열 개씩 짚으로 만든 꾸룽지에 꾸리잖아. 그래가지구 그걸 가지구 가서 팔아서 음식두 사 먹구 그랬어요. (집에서 그러면 닭도 키웠네요?) 닭은 키웠어요. 많이는 못 키우구. 그냥 쪼금씩 키우죠. (그럼, 계란도 많이 드셨어요?) 아유, 그 전에는 계란이 먹구파서 열 개만 먹으면 소원이 없갔어. 근데 그걸 못 먹었잖아요. 아유.

(그럼, 그걸 팔면 뭘 사먹을 수 있어요?) 그걸 팔면 아버지하고 나 하고 설렁탕, 그런 거 사먹을 수 있드라구. (그럼, 그 계란꾸러미를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겠네요?) 그럼요. 시양[지금] 우리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양은 그렇게 안 하고 판에다 하잖아요."

④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아버지, 생사도 몰라

"그런데 6·25(전쟁) 땐데 불곤데도 이북놈이 잡아갔어. 그냥 너무 멕이가 없어 가지구, 요기 똥그란 산 있는데 거기다가 베를 심어놨는데, 그 베를 비러 갔어. 너무 멕이가 없으니까. 근데 나하고 동생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비러 간다고 비러 갔는데, 그 놈들이 그걸 또 잡아 갔어 또. 손도 좀 이렇게 뒤비고 한 쪽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발도 이만큼 없고 손도 이렇게 꼬부라져서 없어. 근데도 그렇게 지팽일 짚고 베 비러 간 거야. 그랬는데 글쎄 그 놈들이 잡아갔잖아.

그런데 여길 돌려보냈어. 그런데 또 보낸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있는지 이 눔들이 정탐을 허느라고 죽였는지 몰르지. 우리는 몰르구 있어 시양. 가 있어두 돌아갔을 거구.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백 살이 넘었어 시양. 우리 아버지가 개띠거든. 우리 엄만 토끼띠구.

근데 9월 4일인가 붙들려 가가지구 9월 11일인가 왔어. 도루. 근데 9월 15일날 저기, 여기 누군가 잔치였는데, 잔치 보구 16일인가 아침에 새벽같이 보낸 거야. 여기 군인들이. 여기 군인들이 그랬어. (왜 보내신 거예요?) 정탐허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안 가군 또 못배기게 하니깐—. 우리 아버지가 불고야. 다리 하나 손 하나가. 그러니깐 불고니까는 그 지랄들 한 거야. 그런데 가다가 죽여서 즈이들이 정탐을 했는지, 그걸 보냈는지 모르지. 그 눔덜두 다 죽었어 시양.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항시 그게 불만이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구 나이 어려서, 그냥 아부지가 그 때가 내가 열다섯 살이거든. 우리 아버지 간 때가. 열세 살 6·25(전쟁) 나구선, 그러니까 열 다섯이 못 됐지. 가을에 갔으니까. 열 네 살 먹구 가을에 갔으니까 인제 열다섯은 안 됐을 땐데. 그래가지구선 한 삼사일만에 왔어요. 도루. 그런데 여기 사람덜이 도루 보냈지. 날짜도 안 잊어버려져. 9월 16일날 갔어.

그래가꾸 못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은 평화가 곧 될 줄 알구, 내가 평화 돼서 와야지, 오면 뭘 하냐? 저놈덜이 자꾸 이렇게 허는 걸. 평화 되면 온다 그랬는데, 평화가 언제 돼? 그리구 나이가 있잖아 인제는. 그러니까 정탐을 해서 보냈는데, 저놈들이 갈 때 죽였는지 아님 갔는데 못 오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렇허다가 그럭저럭 그냥 휴전이 됐잖아."

(3) 어머니에 대한 기억: 셈이 부족했던 나의 어머니

① 배운 것이 없어 셈이 부족했던 어머니

"어려서 그냥 아버지도 그렇게 되구, 엄마도 좀, 아부지가 불고니까는 뭐라 그럴까, 엄마는 생긴 건 안 모자라는데 셈을 잘 못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열두 살에 시집오셨대. 우리 아버진 열일곱 살에 가구. 그래가지구선, 옛날이니까, 그렇게 열두 살에 시집와 가지구 그냥깐 시집살이라구 뭐 알아? 아무 것두 모르지. 그러다보니까 아무 것두 뵈지두 못허구 그러다 보니까 이 셈을 못 허는 거야.

(외갓집은 어디셨어요?) 우리 외갓집은 저 너머 송골이라 그랬어. (지금은 북한이에요?) 응. 요너머 개성 가는 데. 여기서 개성 우리가 한번 놀러갈 때, 거길 한번 디려다 볼려구 했는데 집이 없어요. 세 집밖이 없거든. 우리 외가집이는. 그런데 집이 읎드라구.

(그 때 마을 분들 모두 개성 놀러갔다 오실 때 같이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어요. 가서 볼 거 아무 것두 없어요. 나는 그 전에 개성을, 우리 이모가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본다 가본다 했는데 영 못 갔어. 그래서 그 날 개성이 어떻게 생겼나 갔더니 세상에 개성, 개성 하더니 그까짓게 무슨 개성이라 그러냐구. 아주 집두 볼 것두 없드구만 그냥. (어린시절에도 개성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대니까. 못 가보구. (그런데 여기서 개성장도 보러 다니셨다는데…) 장보러 댕기는데, 우리 이모두 거기 살구 그랬는데, 우리 이모가 노상 여길 오는 데두 거길 못 쫓아간 거야. 그래가지구선 그 때 마지막에 쫓아간다구 쫓아간다구 그랬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한 거야. 그랬는데, 갔으면 못 왔어. 갔으믄 못 왔어요, 그 때."

② 옷을 잘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아버님이 옷도 많이 사 주시고 그랬어요?) 아유, 옷두 잘 못 읃어 입구 그랬어요. 근데 그냥 광목 같은 거, 저런데 나가서 옷 사입을 데가 어딨어요? 광목 같은 거 끊어다가 물들여서 해 입었지요. (그럼 물감을 직접 물들였어요? 무슨 물을 들여요?) 그냥 노랑물 들여서 하구, 분홍치마 이렇게. 광목에다 들여서 이렇게 해 입었지. 깜장치마에는 하얀 저고리. 그런 거 입었지, 어디 가서 옷 사 입어요? 못 사 입었지. (그럼 노랑물 그런 거는 어떻게 들였어요?) 인제 사오지. 노랑물감이 있어. 사오지 인제. 물감, 한 봉지에 얼마씩인 거 사와. 사다가 인제 물들여서, 우리 엄마가 인제 돈심[돈 셈]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잘 해. (옷도 그러면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바느질은 이렇게 잘 하는데, 마름질은 잘 못 뜨셔요."

③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김O예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44살 때 이북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 때 39살이었던 어머니는 이후 40여 년간 딸 가족과 함께 살다가 83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루 갔어. 그래서 내가 만든 잠바를 입구 갔다가 어머니가 춥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씌워 놓구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없어진 거야.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이 동네서 그랬어요. 세상에, 방앗간이 저 뭐냐? 우리 어머이가 저기 볏종자를 이렇게 치는 구경을 허는데, 방앗간에서 쌀을 싣구서 빠쿠를 하다가 우리 어머닐 못 본거야. 그래서 쌀 실은 차가 그냥 빠쿠를 해가지구. 그래가꾸 그 날루 돌아가셨어요. 그 때 팔십 셋인데. 마을에 그 방앗간 여태두 있어. 그런데 지금은 딴 사람이 저 너머에 갖다 크게 했어요. 인제는 그 사람두 죽었어."

(4) 결혼에 대한 기억 : 6·25전쟁 때 보초를 서다 다친 남편과 18살에 결혼하다

"근데다 또 우리 영감두 불만이 많구. 정부에두. 그렇게 해서 진짜 안 좋게 죽었는데, 딴 사람덜은 뭐야 군인해가지구—. 그런데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이 총알을 이 속에서 세 개를 끄냈대요. 세 개를 끄냈는데, 요 불두덩 요기가, 요렇게 요만한 못대가리 모냥으로 딴딴한게 불두덩에 있드라구. 근데 그게 실탄 맞은 자리래. 근데 일루 들어가 가지구 그렇게 되구. 또 이것[오른쪽 다리]두 다 맞은 자리야. 그냥 그 방공구뎅이에 있는 거를 그냥 내두른 거야 그냥. 그러는데 한 사람은 보초 스구, 보초 슨 사람은 도망가구. 우리 애아버이는 도망을 못가구 그렇게 한 거야. 사실 정부에서 돈 주는 건 떠나서 그래두 그건 알아줘야 된다구. 아유, 난 그게 분해 죽겄어. 우리는 6·25(전쟁)때 진짜 너무 불만이 많아요."

① 보초서다가 총을 맞아 거의 죽게 된 남편

"휴전되구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휴전되기 전에, 여기서 인제 절루두 쏘구 저놈들이

저기 똥그란 산에 와 있드랬잖아요. 게서 여기서 마주 쐈어. 인제 마주 쌈지랄을 했는데…. 제네 아버이[남편을 지칭]가 나 휴전되고 만났거든. 열여덟 살에 만났어.

그랬는데 그 만나기 전에, 6·25(전쟁)때 군인덜 하고, 여기에서 자랐는데두 군인덜하고 마주 싸왔어요. 마주 보초 서구. 그랬는데 인제 죙일 일 허구 저녁에 보초서다가, 두 사람씩 섰어. 보초가 열 몇갠가 될 꺼예요 아마. 저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저 끝트머리에서 두 번짼데, 둘이 서는 거야 한 막에. 둘이 서는데, 인제 하나는 고단하니까 자고, 하난 서구 인제 강굴러[서로 교대해서]. 인제 서는데, 우리 아버이가 들어가 잤대. 자는데 저눔들이 여길 다 들어왔대지 뭐야. 그러니까 그 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깨놓고, 나오라고. 저눔들이 여길 와 있다고 인제 깨놓고, 저는 빨리 도망가고 우리 아부지는 인제 이렇게 총을 집는 순간에 벌써 드르륵 쏘드래잖아. 그래서는 그냥 총을 드르륵 쏘는 것을 다 맞은 거야.

그러니깐 그 놈들이 그거를 인제 끌구 가다가, 여기서 그냥 난리친 거지 인제 총으루. 그러니깐 그눔들이 우리 아버이가 너무 늘어졌으니까 가다가 인제 냄새를, 자기가 알잖아? 숨 쉬나 안 쉬나 하는 순간, 게서 숨을 안 쉬었대 아주. 안 쉬니까 그 눔들이 그냥 발길루다 차구선 그냥 갔대. 갔는데 그 뭐야, 눈을 떠보니까 읎드래지.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에다 대고 막 소릴 질렀대. 다 가고 아무도 없다구 빨리 데릴러 오라구. 그래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참고 있는데, 나중에 데리러 나와서 저기 뭐야 군인들이 같이, 근깐 텔러라 그래두 되구 기관이라고 그래두 되는데, 그 본부에서 제시에이로 내보낸 거야. 인제 부상당했으니까."

② 병원이 하도 좋아 저승인 줄 알았던 남편

"내보냈는데 제이씨에서 뱅기를 타고 갔대. 뱅기를 타고 갔는데 얼루 얼루 갔는지 그냥 그 뱅기 안에서 그냥 미군은 그냥 막 때리고 그랬나봐 아마. 그래가지구선 얼루 갔는지 글쎄, 갔는데 얼루 갔는지 모른대. 근까 전신마취 시켰으니까 모르지 뭐야. 그랬는데 거기서 나중에 깨서 물어봤대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깐 여긴 월미도, 인천 바깥이라 그러드래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주 진짜 병원이 그냥 너무너무 좋드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승인줄 알았대. 지가. 저승인 줄 알았대. 그래서 나중에 깨보니깐 병원은 병원이드래. 미군들이 자꾸 그냥 와서 호각을 불구 하니깐 저기 나중엔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이래구 살았어요."

③ 다친 후유증으로 당뇨를 앓게 된 남편

"그래다가, 유월 달에 그랬거든요. 유월 달에 그랬는데 음력 4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음력 시월 달에 금천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 아,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는데. 그 때는 우리는 나 하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냥 남남끼리인데, 아, 노인네들이 그 때 내가 열여덟 살인데 노인네들이 자꾸 결혼을 허래. 그 사람 허구. 그래서 우리 어머니두 반대허구 나도 싫다구 그랬는데, 그 이두 남의 집 살았어. 어머이도 일찍 잃구.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이니까 여자를 인제 자기 식구를 하며는 귀염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거를, 그냥 자꾸 그러다 넘어갔지 뭐야. 할아버이들이 그러니깐. (아이고, 잘 하신 거죠.)

근데 처음엔 잘 했다구 그랬는데 허구 보니깐 이 사람이 그렇게 몹시 다친 거라. 결혼핸 연에 보니까 배꼽 위섬부터, 명치 있는 데서부터 불두덩까지, 그리구 또 여기[넓적다리 부분]도 아주 만창이야 아주. 여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된 순간인데,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어. 그런데 그냥 그 후유증이지. 후유증을 그렇게 앓다보니깐 거기서 당뇨가 온 거야. 게 당뇨가 와서 한 십년 그렇게 살다가, 한 십년 더 앓다가 죽었어. 그래서 고상 많이 했어요."

④ 남편 살려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아이들 아파서 그렇게 해본 건 없구, 우리 제네 아부이 아파서는 병원에 가구 그냥 그래두 안 나니까, 할머니들이 또 뭘 해라 그래서, 아는 사람 안 데려다 허구 몰르는 만신 데려다 했지요. 두 번이나 했는데, 근깐 처음에는 만신도 몰르구 살다가, 지푸라기락두 붙들면 인제 저거 한다구 그래서 했지. 그래서 두 번이나 했는데, 한번은 효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구선 얼마, 한 일 년이나 됐을까 또 아파가지구 처음에는 고려병원에, 고 다음에 성모병원에, 고 다음엔 메디칼센터 거기, 또 대학병원에 네 군델 댕겼어요.

네 군델 댕겼는데, 가서 입원을 하믄 최소한도 이 주 있구 뭐 그렇게 있다 오잖아요. 또 해다 놓으면 쫌 뺀한데 또 올리구. 근데 그 전에는 음식 조절을 못 허구 약 조절을 못 해서 더해. 옛날에는. 지금은 약 조절을 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심허믄 인슐린을 맞구 그러잖아.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어딨어요 기냥. 그래 나중에 심하니깐 불알루다가 이렇게 물주머니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구서는 병원에 가서 고치구서는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는 또 여기 가서 무릎이 이상하더니 여[발가락]가 터져가지구 그

냥 고름이 나오구 그런 거야.
그래 나중에는 헐 수 없이 병원에 가니까 아유, 이렇게 까지 했는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잡숫구 싶은 거나 드리라구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그 때는 아주 오래 앓을 줄 알구 그냥 준비를 다 해왔어요. 요두 인제 비니루까는 요두 다 해가구, 요두 겸요 따루 사오구 그랬는데, 하룻저녁, 그거 깔구 한 이틀저녁이나 드러누었드랬나, 그냥 금방 가드라구요."

⑤ 나라로부터 아무 보상도 못 받아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러구 거기 기관들 말이야. 같이 군대생활이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두 암만 6·25(전쟁)때락두, 그런 거를 우리가 나설 사람이 없어 가지구, 딴 사람덜은 같이 군대생활해가지구 저기 뭐냐? 뭐라 그러지? 받았어 돈을. 근데 우리는 그것두 못해가지구 못 받았어요. 차라리 우리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걸 못했어. 난 접 때, 그 때[2014. 5. 9. 조사단이 처음 방문했을 때] 오셨을 때 그걸 그렇게 허구 싶더라구 말이. 그렇게 고상을 많이 했다구.
그리구 죽구 나니깐 6남매야 내가. 아휴, 6남맨데 사실 내가 살기 심들었어요.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O득이요. (고향이 어디시래요?) 고향이 없어요. 엄마가 요기 개풍군 개울에 가서 같이 있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군 그 개풍군 사람들이 묻었대요. 개성 들어가는데 그 공동묘지에다. 그래가지구 거기서 무슨 여기 어영개[어룡개 저수지] 있는 데다가 자식 없는 사람한데 줬나봐. 근데 자식 없는 사람한테 줬는데, 자식 없는 사람한데 살다가 그 사람이 또 싫어가지구 여기 우리 동네 있는 사람한테 줬어.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한테 잘 키워가지구 스물여섯에 나 하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데릴사위로 여기서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너무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아픈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안네 올케가 저기, 누이 결혼했는데 그것 그냥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야, 감자가 그냥 있냐고 그러드래니깐. 그것두 없는 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몹시 다쳤으니깐. 그 정도로 다친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으니 뭐 얼마 살아? 그래가지구 십 년 동안만 같이 생활이 좋았지, 그냥 뭐 13년을 앓다가 갔어요. 쉰 한 살에 갔어요."

(5) 6·25전쟁 때 마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① 6·25전쟁 때 온 가족이 염병을 앓아

"(6·25전쟁 때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네요.) 여긴 6·25(전쟁)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6·25(전쟁)때 휘발유통도 그냥 막 던지구. 그냥 기관총으루다 막 허며는 그냥. 방공 구덩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방공구덩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산으루 있지요. 산으루. 6·25(전쟁)난다고 하니까 방공구뎅일 팠는데, 6·25(전쟁)폭격할 때 다 가기가 바쁘게 다 죽는 거야. 아유.
그 때 염병도 했잖아. 염병두 많이 해서 죽구. 열병.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왔어요. 인민군들이 어떻게 해서 묻어 왔는지, 모르갔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쳤지요. 다 죽었지요 왠만해서는. 나도 앓았는데, 나도 앓고, 우리 아버지도 앓고, 우리 엄마도 앓고 다 앓았어. 그런데 다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기 끌려 가구.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염병으루. 그런데 걸린 사람은 아는 사람네루 가질 못했잖아. 옮는다구. 근데 이렇게 앓고 드러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웃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눔들이 우리 아버지 저기 있는 걸 그냥 막 때려주고 그냥 데려가고, 또 데려갔는데 또 동일인이 들어와서 때려주고 데려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상허다 왜 우리 아버지를 누가 저렇게 때리나 하고 방공구뎅일 찾아갔어.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방공구뎅일 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방공구뎅일 파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깐, 난 아버지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때려주니깐, 그냥 저기 뭐야, 그 사람한테 붙들려 간 줄 알았다고 허니깐, 너 헛 봤구나 그러면서 가서 드러눠라 그러드라구. 그런데 머리가 하나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몹시 앓으니까. 아휴, 그 때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죽는 거지.
근데 그건 한 사람씩 빼주고 앓는대. 그거는. 근데 내가 젤 나중에 앓았어.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앓구 아부지 앓구 나 앓구. 그런데 6·25(전쟁)때 염병을 앓는데 먹을 건 없지, 그래서 기력이 없어 더 죽는 거야. 사람들이.
불에 탔잖아요. 식량들이 다. 불에 타서 그냥 탄 쌀 건져다 먹고 그랬지요. 아휴…."

② 방공구덩이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6·25(전쟁)가 났잖아. 그러니깐 인제 그 베[벼]들을 다 버리고 나갔지. 버리고 나가서 몰래몰래 나가서 그냥 베 이삭들을 막 잘라다가 푸대에다

담아서 그냥 갖다가 찧어서, 밤에 찧구 그냥, 그렇게 해서 먹구. 그 앞에 논들을 다 버리고 갔잖아.

(6·25전쟁 때 피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죠?) 나는 안 나갔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안 나갔어요. 아버진 불고니까 누가 잡아가랴구 안 가구, 엄만 하나니깐, 나하구 동생허구 네 식군데 아무도 안 나갔죠. (그럼 1·4후퇴 때도 그냥 여기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방공구뎅이 파구. (방공구덩이에 보통 몇 사람이나 있어요?) 파기에 달린 거죠. 어떤 구뎅인 많이 파가지고 여러 식구가 다 들어가고. (방공구덩이에 있다가 몰살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방공구덩이에서, 옛날에 그 6·25(전쟁) 때 피양서 피란 나왔잖아. 그런데 피양서 저기 방공구덩이에 있다가 죽은 사람덜두 있어. 방공구뎅일 쳐 가지구. 그러구 그 방공구뎅이에 있다가 추우니까 이렇게 남포불 키는데 불이 나서 연기가 나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구. 많아.

그리구 소두 이 동네에 집집마다 다 있었드랬잖아요. 다 그냥 폭격할 때 죽구 세 마린가 남았어. 다 죽구. 그래서 세 마리 가지구 동네에서 다 빌려다 쓰구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때는 뭐 농사나 많아? 비행기 지랄을 하구 그러니깐, 아, 그 비행기가 저 마산[대성동 근처의 산 이름]가지구 싸우구, 서루 그거 가질려구 싸우구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눔들이 뺏었지. 그래서 인제 거기서 구뎅일 파고 들어가서 도라산에 구뎅이[땅굴] 있잖아요? 거기[마산]서부터 파 들어간 거지."

③ 6·25전쟁 때는 이런 저런 일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구 내가 6·25(전쟁)때 몇 월 몇 일 불난 건 내가 알아. 11월 달에 무조건 동네에 다 불났어. 그리구 2월 달에. 2월 17일날, 음력으로. 17일에 와서 또 막 불을 놔 가지고 그냥. 불 놓나마나 그 땐 뭐 탈거나 있어? 11월달에 다 타고. 그냥 휘발유통을 막 던져가지구, 길에 가다가 우리 집안네 언니는 그 때 스무 살, 그 때 어떻허다가 피란을 안 나가가지고, 그냥 그 휘발유통에 디어 타죽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구 그 집 식구들은 다 옘병에 갔어 다. 읎어. 피란 나간 사람들만 남구. 피란간 사람들두 옘병 해서 고상들 많이 했드라구요.

그리구 6·25(전쟁)때 다 불놔서 집이 하나도 없었잖아. 80호 됐거든 여기가. 80호 됐는데, 불을 6·25(전쟁)가 음력으루 5월 10일날인가 났는데, 그날 또 내 사촌동생을 낳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부네가 피란을 못나가다가 1·4후퇴 때 나갔어. 나갔다가 또 그만 식구만 버리고 갔으니까, 또 금방 어떻게 수소문해서 들어와 가지구 저놈들에게 붙들려 갔다니깐. 우리 고모부도.

우리 아버이[남편]두 그 피란 나가서 고상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차라리 그런 모욕을 안 당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해 가지구 그 병을 연관을 해가지구 당뇨가 합병증이 돼버렸어. 시방은 당뇨병을 유지해 나가잖아 지금은. 그런데 고려병원을 갔는데 이상준박사가 저기 당뇨병이래. 그래니깐 당뇨병이 난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옛날로 말하자면 조갈병이래. 그래가지구선 어떡허냐구 고칠 수 있냐니깐 고칠 수 있대. 아, 그래가지구선 그 느무걸 고칠랴고, 그 때 돈이 어딨어? 그 때 30만원이면요, 엄청 큰 돈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 때 300만원 가지면 집 샀잖아. 아휴, 그래서 남의 빚 얻어다가 그냥 아버이 병 고칠려고 애먹다가 못 고치고 죽었어."

④ 한겨울 눈 속에서 양회종이로 발을 초매구 도망간 닭을 찾아 다녀

"어렸을 때 짚신 신다가 겨다, 겨다 깎아서 여길 끄나풀을 이렇게 해서 매서 신구 다녔는데. 짚세기는 눈이 안 묻어나는데, 겨다는 눈 올 때는 눈에 자꾸 쐬이어 못 신어. 그전에 6·25(전쟁)땐 짚세기 신었죠. 신발이 어딨어? 신발 읎지.

6·25(전쟁)때, 아유 맨 몸둥이루 저기 했다가, 눈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닭이, 집에 불이 났으니까 닭이 다 이렇게 뿔뿔이 헤지지 않았어요? 그래가꾸 인제 닭을 이제 아침에 일찍, 그냥 저 넘어서, 이 넘언데, 그 너머서 뭐 있어야지 신발이 있어? 뭐 있어? 양회종이루다가 이 발을 초매구 그럭허구선 가서 닭을 붙들어다 먹는다고 갔는데, 아침 일찍 갔그든. 인제 나무에나 뭐 어디에 올라가 있으리니 허군. 그런데 닭이 산으루 뛰었는지 없어요. 산으루 가서 낭구에. 근데 낮에 가면 있거든. 근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없더라구. 그니까 나무 같은데 어디 가서 얹어서 살았어요.

아유, 그 전에 6·25(전쟁)때 뭐 불에 탄 쌀 먹질 않았나, 밥쌀이 없어가지구 그냥."

⑤ 개성 사람은 비누를 만들어 팔러 와

"그 때 막 폭격하구 그러는데두, 개성 사람이 막 장사하러 나와. 저들도 먹기 힘드니까. 막 비누 같은 거, 옛날에 어딨어? 읎지. 그니깐 양잿물루다가, 겨루다가 비눌 만들어다가 한 장에, 그 큰 거 한 장에 버리쌀 한식 되 (6·25전쟁 때도 그렇게 장살 했어요?) 응, 저희들두 먹구 살아야 하니까. 기냥 막 폭격허는 데두 그냥 장살하러 오드라구요. 자봉틀두 갖다 팔구 그냥, 먹기 심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구 와가지구 막 바꿔가구 그랬어. 이모두 그 때 장살 많이 나왔지요.

6·25(전쟁)때 막 폭격허구 그래두 검정고무신 같은 것두 막 지구 나왔어. 그러니깐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뭐 가다가 죽구 오다가 죽구 그랬갔지 뭐 다 살았겠어요?"

⑥ 똥그란 산은 동네의 화근덩어리

"6·25(전쟁)때 저 똥그란 산 허구 여기 시양 사무실 있지요? 군인덜. 거기 허구 마주 쏴. 근데 그 전에는 문이 문창호지잖아. 유리가 어딨어? 유리가 없지. 또 총알이 여기서 쏘면 저리루 날라 가구 저기서 쏘면 이리루 날라 오구 서루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냥.

그 놈들이 거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몰르구 어떤 사람이 조 잘르러 갔다가 그 눔들한테 총 맞아 죽었어. 스무 살 먹은 총각이. (언제요?) 6·25(전쟁)때. 그러니깐 그 때는 저 똥그란 산이 화간이었드랬어. 그 때는. 불만이 많지 그게. 여기서 여기루 쐈는데, 저놈들이 벽 속에 있으면 암만 쏴두 안 맞지. 그래서 비행기가 저기, 그러니까 군인들이 폭격을 인제 탱크루다가 쏘잖아. 쏴두 가보니까 밭 가운데만 떨어졌지 그리룬 하나도 안 떨어졌어. 나중에 가보니깐. 그래 이놈들이 방공구뎅일 파고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여서 암만 쏴두 소용이 없지. (지금 팔각정 있는 곳이 똥그란 산이었어요?) 예. 그렇게 구뎅일 파고 있으니 여기서 쏘면 죽냐구? 안 죽지.

그러니깐 처음에는 그걸 우리는, 6·25(전쟁) 났으니까 그놈들이 여 와서 몰래 있다가 잡아가는 줄은 생각두 못했지. 근데 두 사람 거기서 잡아갔어요. 두 사람, 게서. 그 아이가 세 살에, 그 때 6·25(전쟁)때 난 아인데, 두 살 먹어서 붙들려 갔지. 돌 지난 년에. 아이구, 여기서 그냥, 증말 아유, 죽은 사람들두 많구. 피양서 피란 나와가지구 거기 나가서 일 하다 죽구. 나가서 죽은 사람들두 많아. 내가 휴전되구 나서 저기 그 때두 한창 저기라니깐. 죽은 사람들두 엄청 많아.

(죽으면 여기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리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묻어 주지 않아요?) 묻어줄 수도 없어. 어떻게 묻어요? 여기서 옘병에 죽었잖아요? 우리 집안네는, 우리 아부지가 그 때 붙들려 가기 전에 그냥 검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묻어요? 그걸 못 묻죠. (검편이 뭔데요?) 이런 데 내다 놓구 그냥 염으로다가 싸매거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사람덜 죽어도 못 묻어줬어요."

⑦ 땅에 묻은 곡식과 옷도 군인들이 다 찾아 써버려

"6·25(전쟁)때 인삼밭덜, 개성사람덜이 심은 인삼을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캤지만, 저런 데는 뭐 군인들이.

아유, 군인들이 말이야. 휴전되구 나서 저런 데를 돌아다녀보니깐, 냇물 뚝에다가 곡식두 묻구 저기 옷두 그냥 갖다 묻구 그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구 군인덜이 다 그렇게 캤어. 캐서 빈 항아리야 다. 그런데 그냥 곡식두 떨어져 있구 옷두 안 맞으니까 즈네들이 안 해서 그냥 거기서 다 썩구. 냇물뚝에다 다 묻구 그랬는데, 그런 것두 다 쑤셔갔어. 군인덜이.

그리구 인민군들이 여기 많이 왔지. 내무서원들. 중국사람덜 뭐 엄청. 그러니까 여길 폭격허는 거야. 자꾸."

(6) 가난했던 어린 시절, 먹는 고생은 정말 많이 해

"(아버님이 강릉 김씨셨는데 물려받은 땅은 없었어요?) 농토가, 원래 그 전서부터 어렵게 사니까, 저 소작으루다가 땅 서 말지기 하고 밭 서 말지기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왜 더 먹을 게 없냐면, 땅두 서 말지기 있는 게, 저 짝[사천강쪽]인데 물이 자꾸 가요. 근데 물이 자꾸 가니까 쌀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구 밭곡 가지구 살래니까 그냥 뭐 조 심어서 조 먹구. 떨어지면 또 식량 똑 떨어지구. 또 버리 심어서 버리 먹구 떨어지면 또 식량 떨어지구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꾸 아부지 잡혀가구 그러구나서 고상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그냥 나물만 뜯어다 먹구. 그 때 멕이가 없으니까. 여기 사람덜은 뭐, 좌우간 시집온 사람덜은 모르지. 여기선 나 허구 홍O순 씨라고 있는데, 아마 홍O순 씨는 우리네보다 고생을 안 했어요. 어머니 아부지가 떳떳하니깐. 그니깐 저기 나만, 그래서 우리 또래끼리 놀면 나는 나가서 나물이락도 해 와야 끼니길 허는 거야. 하루에 쑥 한 대리끼, 나물 한 대리끼, 이렇게, 휴전되구 나서.

(들나물은 뭐뭐 있어요? 여기에) 들나물은 많죠. 저기 미나리도 있구, 질경이, 또 저기 뭐야, 들쑥두 있구 여기에 많아요. 소스랑깨비도 있구. 소스랑깨비는 이렇게 똥그란 건데 가달가달 난 건데 맛있어요. (그걸 어떻해 해서 먹었어요?) 그걸 삶아서 무치지. 그래서 그 전에는 간장을 많이 담가도 간장이 쩔벗어. 그냥 나물은 무쳐 먹구. 쑥은 해다가 쌀 한 웅큼 섞어서 개떡 쪄 먹구. 하여튼 먹는 고상은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에 취나물 같은 것은 없어요?) 취나물은 저짝에 있었지요. 산에 있으니까 못 갔죠. 원래 취나물은 많은데, 산이 원체 불이 안 나고 이렇게 쌔였으니까 나물이 안 나는 거야. 게서 저번에 내가 천마를 캐러 갔는데, 밀나물이라구 있어요. 그런데 그게 6·25(전쟁) 나군 여태 못봤는데, 거길 가니까 글쎄 밀나물이 이렇게 났드라구. 그래서 시상에 밀나물이 있네, 그리구선 꺾어다가 고사리마냥 삶아서 무쳐 먹었어."

(7) 6남매 낳아 키웠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

①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아 6남매나 낳아 키웠어.

"(자녀가 6남매라 그러셨지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있는 대루 낳잖아. 그냥 한 사람당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뭐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우리네가 열여덟에 결혼을 했는데, 스물한 살 때만 갔어두 인제 애를 많이 안 났어. 그런데 우리네는 열여덟 살에 결혼을 해가지구 열아홉 살에 낳지, 한 해 걸러 낳는 거야. 수물 한 살에 낳지. 수물 세 살에 낳지. 그런데 수물 한 살에 간 사람은 아이 둘밖에 안 났어요. 나 하구 동갑네가. 그런데 나는 일찍 시집가가지구 여섯이나 났지. 그런데 지금들은 아유, 아이 하나만 낳구, 둘만 낳구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아이들 많이 낳구 고생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이들 아래로 내려 갈수록 예쁘잖아요?) 아이를 날수룩에 그렇긴 해요. 그냥. 미운덴 읎어."

② 첫아이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직접 삼을 갈라

"(옛날에 애기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린 애기 나두 내가 다 했어요. 인제 애기 나면 첫 아이는 저 파주병원에 가서 났는데, 지금 그 양반이, 그 애기 받은 양반이 어디 있어. 김00이라구 도립병원에 있든 사람인데, 그 땐 총각이야. 그 땐 장가 안 갔을 때 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십 몇 살이야. 여태 의사해. 근데 거기서 하나 받군 내가 집이서 낳어 다.

(애기 낳으면 상 차리거나 그런 거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잘 못해. 미역국 끓여다 주면 그냥 먹구. 내가 삼 갈르구 내가 혼자 있을 때두 많이 낳어. 둘째두 혼자 낳구. 엄만 일 가구 나 혼자 낳구. 그냥 삼 갈르구 다 했지. (그럼 삼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담아 놨다가 내다가 태우잖아요. (애기 처음 입는 옷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는 다 해놓지. 내가 애를 놓겠다 그러면 준비를 해 놓는 거야. (애기 옷감은 어디서 나요?) 사와야지요. 저 문산 가서. 그 때는 문산이 아니구, 그 때는 문산두 없었어요. 근데 저 금촌 가서 했지.

(아이들은 다 여기 대성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네. 대성초등학교 댕기구. 딸네민 저 금촌 파주학교. 아들네미들은 금천에 문릉학교. 거기 댕기구선, 또 저기 큰아들은 공부가 짧아가지구 인천공고로 갔어요. 인천고등학교까지 마치구 와서 농살 진거지. 결혼은 여기서 허구."

③ 아이들 옷도 다 만들어 입히고, 지금도 내 옷이 안 맞으면 고쳐서 입어

"우리네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냥 두루매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두 내가 마름질을 해서 했거든. 쓰봉 겉은 것두 내가 다 만들어서. 애들 옷두 다 맨들어 입히구.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사 왔는데, 너무 짧은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뜯어서 딴 단 대고 해 입었지. 자봉틀두 있잖아요. (저 재봉틀은 언제 사셨어요?) 저거 산지 오래지 않았어요. 내가 아마 저게 세 개짼 거야. 발자봉틀 있다가 발자봉틀 집어치구, 손자봉틀 하나 또 옛날에 개성에서 사온 건데, 이런 거 아니구 이렇게 저건데, 그건 또 안 돼가지구 딸이 또 하나 사줬어요. (전에 쓰시던 거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버렸지."

④ 큰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항상 걱정

"그 때는 며느리 하난 봤어요. 애들 아버지 죽기 전에. 큰 아들이 너무 일찍 장개를 갔어.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해려 했어. 그 때 수물 두 살인데, 근데 너무 어른스럽게 잘하니까 어른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구선 아이, 그걸 데리구가서는 알롱거려서 선을 봤어. 근데 또 수물 두 살에 왜 그걸 했냐구. 아유, 그래가지구 애를, 즈이 아버이는 그래서 일찍 잘 봤지. 손주를 보구 죽었으니깐. 큰 아인 그냥 그렇게 일찍 쟁갤 가가지구선 또 일찍 손줄 봤잖아. 그래가지구선 손주는 남맬 나서 시양 일곱 살 됐는데, 큰 아이는 지금 딴 여자 얻어서 일산 가있는데, 안 좋아요 간이. 간을 짤랐거든요. 짤른 지가 한 오년 됐는데, 재발이 돼가지구 지금 일산 병원에 가 있어요. 내가 큰앨 생각허믄 지금두 항상 걱정이예요.

하나는 나가서 장사하구. 둘째가. 저기 금촌에서 매운탕집 허구 있어요. (매운탕집 이름이 뭔데요?) 대성동매운탕집이라구. 그리구 딸 둘인데, 하나는 미국 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구 결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민 간 건데 남매 낳구 잘 살구. 그리구 하

나는 여기 금촌에 있구. 막내가 쌍둥이야. 쌍둥인데, 하난 죽구 하난 여기 있어요. 마흔 니 살인데, 당뇨루. 회사에 댕기다가 그냥 술 있는 대루 그냥 막 먹구 그러다가 그냥 당뇨 있는 거를 모르다가 나중에 술증져가지구 병원에 가니깐 당뇨라 그래가지구. 회살 댕기니까 병원엘 제대루 못가는 거예요. 일요일날엔 또 병원이 안 허구. 그렇게 해선 그냥 지내구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 여기 있는 거 허구 큰 아들허구 농살 지었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이 그런 병이 걸려가지구 막내가 다 농사를 맡구, 큰 애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⑤ 한때는 열 한 식구가 살던 집안, 그러나 지금은 혼자 살아

"(그럼 지금 막내랑 같이 사세요?) 아니, 나 혼자 살아요. 막내는 저 건너 문산 저의 집에서 사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 살아요. 마누라는 그냥 거기서 밥해 주구, 아들은 거기서 자면서 여기를 댕기면서 농사를 지어요. 막내 아들 손주 녀석이 올해 대학 갔거든요. (어느 대학 갔는데요?) 뭐, 명지대학이라든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그래두 그 전에는 열 한 식구 살았드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다 세간 나구, 아부이 죽구, 어무이 죽구, 동생 시집 가구 그러니깐 이제는."

(8) 나, 지금도 춤은 잘 춰요 노래는 못하지만

동네에서 들어보니, 예전에 마을에서 대동굿을 크게 할 때 김O예 씨가 춤을 추다 팔이 빠진 적이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물었더니 들려준 것이다. 듣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웃었다.

"그거는 내가 까불어서 그렇지. 저기 그 무당들이 집이 들어가 저녁이면 자. 거길 비워 놓구. 근데 굿당을 비지 말래요. 그래니까 우리덜이 거시서 샌다구요. 샜는데, 심심허니까 그냥 돼지두 시워[세워] 보구, 그냥 말두 타 보구 그냥 별지랄 다했어. 그 옛날에 그 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말(좌), 그거를 쌀을 이렇게 부꾸구, 거길 올라가구 그런 거야.
거길 올라가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빠졌어요. (아, 춤추다가 빠지신 게 아니고요?) 거길 올라가다가, 올라가서 이제 춤 춘다구 올라가다가 이게 넘어져서 춤두 못 춰보구 이게 빠졌어요. (오른쪽 팔꿈치가요?) 이게 뿌러진 만큼 시간이 가대요. 늘어난 건 아닌데, 이걸 맞춰가꾸, 이것 맞춰 났잖아요. 근데 기브스를 했는데, 그걸 필래니까 그렇게 심이 든 거야. 필려니까.
(대동굿은 몇 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 전에 5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시양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벌써 대동굿한 지 한 십오 년 됐을 걸요. 십오 년 넘었을꺼야 아마. 인제 이 동네에서 이 대동굿을 하려면 화합이 되거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덜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나, 지금도 춤은 잘 춰. 놀러가면 춤 추는 건 잘 해. 노래는 못 해두. 노랜 못해. (팔 빠지고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벌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하하. 그랬갔지 뭐."

(9) 이제 아이들하고 살 만하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몰라

김O예 씨는 2014년 6월 8일 다쳐서 금촌도립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했다가 2014년 7월 10일 퇴원하여 마을로 돌아왔다. 우리가 김O예 씨를 처음 만난 건 퇴원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자랄 때두 사실은 일본 정치 때 나서, 우리가 부모가 불고니까 우리가 고상 많이 했어요. 먹을 것두 없구 진짜 많이 고상하고 자랐는데, 지금 진짜 아이들하고 살만 하니까, 내가 지금 일흔일곱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을 자꾸 다치냐 이 말이야 응? 아유, 고상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거를 예순일곱에 다리를 한꺼번에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구선 이거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너무 자꾸만 다쳐가꾸 그냥. (칼슘 같은 거 들어간 것도 많이 좀 잡수세요.) 먹기도 잘 먹어요. 원체 생긴 게 이렇게 대살이구. 그래서 이렇게 뼈가 너무 강한가. 그래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 그것두 검사를 해봤어요. 골다공증. 이만한 기계에 들어가서 했는데, 내 나이 치구 그만큼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지. (아,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근데 이게 수술을 뒤에 뼈있는 데서부터 여까지 갈랐대. 이짝은 또 옛날인데 한 6~7년 됐어요. 이짝에는 또 요기 나가다가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군인덜 저기 회관에서 부녀회장이 군인덜 떡을 끓여 먹인대. 그래서 떡국 먹으라구 할머니들도 오래잖아. 그래서 또 나가는데, 요기서 넘어져 가지구선 이게 고관절이 깨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엄

청 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것 좀 봐요. 무릎팎도 다 수술한 거야. 수술한 데다가 요기 또 부러졌지. 여기 또 그렇게 됐지. 여기 또 그렇게 됐지. 손목 또 그렇게 됐지. 다섯 번이나 그렇게 됐어. 아휴, 그래가꾸 몸이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살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자꾸 부러져요?

나는 이번에도 저기 할머니들 다 나갔어. 한증막에서. 근데 나만 남았으니까, 토방이 이렇게 우묵하잖아요? 그런데 손이 부러졌으니깐 이걸루다가 이렇게 짚고 일어날려고 손을 짚었는데, 못 일어 나겠드라구. 다리가 성하질 않아서. 그래가지구 다시 일어날려고 앉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깨졌어. 아유.

(제사는 누구누구 지내세요?) 우리 애들 아버지만 하나. 어머니는 친정에서 안 드린대니까, 절에서. 절에 가서 인제, 우리 동생이 절에 댕겨요. 그래 동생이 절에다 위하구. 외손봉사는 못 헌대잖아. 그런데 요즈음은 딸이구 아들이구 하나만 낳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깐 막 허나봐. 제사는 내가 허믄 아이들이 와서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나간 동지달이 지산데, 아범이 저렇게 아프니까 못 지냈지.

그리구 내가 옛날에는 고사두 잘 해먹구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덜이 자꾸만 저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안 해 먹어요. 해두 소용이 없는 거 같구."

(10) 돈 되는 일이라면 지금도 쉬지 않고 억척스럽게 일 해

장애인전동차를 탄 김O예 씨

우리가 김O예 씨를 처음 만난 건 금촌도립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 때도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어 하면서도 개인용 장애인 전동차를 끌고 멀리에 있는 고추밭을 막 갔다왔다고 했다. 이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여성인가를 알 수 있었다. 김O예 씨는 다치기 전에는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다니곤 했는데, 장애인 전동차는 스톱하는 방법이 오토바이와 반대라 불편이 아주 크다고 했다.

① 고추 심어 팔고, 콩을 심어 메주를 쒀서 팔아

고추장, 된장 항아리로 가득한 김O예 씨 댁 장독대

"아이구, 난 아주 고생될려니까 내가 이제 농사를 엄청 벌겨놨어요. 콩두 심어 놓고, 저 고추도 한 삼천 주 심궈 놓고, 깨도 심어 놓구 다했는데, 내가 거기 가 있으니 어떻게? 금촌에서 매운탕 하던 아이가 와서 다했어. 그거를. 여태까지. 농사를 4월부터 여태까지 다했어.

(그럼, 지금 농사를 어느 정도 지세요?) 우리가 지금 많이 짓지요. 많이 짓는데, 지금 아들이 저렇게 돼 가지구 막내가 다 맡았어요. 맡았는데 쟤가 인제 맡아가지구 다하면 한 2000가마 돼요. (고추도 3000주 심으셨고요?) 심긴 심었는데, 아유, 모내 놓구, 가지 따구 줄 띄구 그랬는데, 또 다쳐가지구 오늘 처음 가본 거야. 그랬더니 고추가 열리긴 엄청 열렸는데, 날이 가물어가지군 그냥 쪼득쪼득해. (쪼득쪼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랐다구. 여기 말 다른 게 많아요. 저기 개성말이 돼서. 여기 말 후방 가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돈 되는 농사는 뭐가 있어요?) 농사 지어서 돈은 못 벌어요. 왜 그러냐 하믄 내가 돈 벌랴구 여 넘어다 배출 심었어. 저기 추석 때. 그랬더니 그것두 복이라구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다 없애고 안 심어. 다시는. 그러구 돈 버는 거는 고추 심구, 고추 심어서 팔아. 그러구 내가 콩을 심어 메주를 쒀서 팔구. 또 고추장은 우리 아이가 매운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거 다 게가 갖다 쓰는 거예요."

② 십 년째 안 열려 도토리가 없어

"(전에 보니까 여기서 도토리도 많이 딴다고 하시던데요?) 도토리가 옛날에는 많이 열었어요. 근데 이즈막에는 여기 한 분이 이북에 붇들려 갔드랬잖아. 근데 그 때 많이 땄어요. 그 때. 그건 진짜 그 때 도토리가루 그야말루 한 삼십 말 더 했어. 엄청 많이 땄어. 근데 그 때 열리군 안 열리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갔어. 안 열리는 거야. 작년에 내가 요기 밭에서 헹갈낭구가 열었어. 그래서 거기서 자꾸 따 모으구 저기서 행갈낭구 세 낭구에서 따 모아 가지구 도토리 녹말을 두 말을 했어. 두 말을 했는데, 어떻게 팔래는지 그래서 삼십 만원씩 팔았어. 그랬는데 팔았는데 올해는 고만 팔지 말아야지. 아휴, 도토리가 안 열어가지구.

(그런데 도토리나무는 여기에 아주 큰 게 많던데요.) 근데 안 열어요. 꽃은 아주 무척 많이 피는데두 안 열어요. 근데 올해는 저기가 불이 났었거든요. 제이시에서 오면서 불 났드랬어. 그러는데 그걸 안 꺼야 되는데, 제이시에서 다들 끄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 불난 자리는 열 지두 몰라 올해. 왜 그러냐 하믄요. 벌레가 이게 너무 나무가 새여 있으니까 벌레가 생겨가꾸 벌레가 다 그냥 저기 열매를 다 쏠바 내려. 그래가꾸 없어요. 인제 타면 충이 죽어 버리지.

(도토리는 그냥 파세요? 아니면 가루로 해서 파세요?) 가루로 해서 파는데, 우린 못 팔아요. 집 수요가 아덜 딸이 육남매야. 미국에두 있구, 뭐 또 여기두. 그러면 그 눔덜 한두 되씩만 줘두 뭐, 동생두 있구 뭐, 팔 것두 읎어."

③ 기계값이 비싸 이제 벼농사 지어서는 돈 벌기 어려워

"그 전에는요. 옛날에는 다 손모 냈잖아요. 그 때는 우리가 다 몰려 댕기면서 다 모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루다 내니까 편하지. 근데 편한 대신 지금은 돈은 못 봐.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기계가 1억정도 가니 뭐, 그거 사가지고 또 망가질만 허면, 갚지도 못했는데 망가져 죄 또. 그래서 농사 지어서 기계 값도 안 나와요. 그리구 인제는 기계 땜에 사람을 사서 모내는 게 아니구 제각끔 내는 거야 모를."

2) 이북에 끌려갔다 온 경험이 있는 홍O순 씨

[여, 1935년, 78세, 돼지띠, 남양 홍씨, (남편 故 김O수 씨/1932년생)]

홍O순 씨

홍O순 씨는 대성동 토박이다. 호적에는 1931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1935년생으로 현재 78살이다. 호적에 31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남편이 홍O순 씨의 나이를 4살 올려서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 김O수씨는 고향이 개풍군 봉덕면인데, 6·25전쟁 때 대성동으로 피란을 나와 텔러로 있다가 홍O순 씨를 만나 결혼했다. 18살에 첫 아이를 가지면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현재 맏아들이 61세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어려서 잃었고,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되어 술로 사망했다. 남편은 3년 전 해수로 사망하였는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 현재는 맏아들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막내아들은 부평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 평생 농사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말려서 일을 쉬려고 해도 애들이 일을 벌여 놓으니까 거들지 않을 수 없어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성격이 쾌활하고 잘 웃는 편인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홍O순 씨는 1997년 가을, 아들과 함께 마을 인근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에 끌려갔다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 일은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대성동은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는 마을인 만큼, 이와 같은 사건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특별히 홍O순 씨의 생애사를 조사하여 기록하기로 한다. 홍O순 씨의 생애담은 약술하고, 이북에 끌려갔다 온 내용에 대한 구술은 자세히 싣기로 한다. (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초등학교 3학년 때 6·25전쟁이 나서 학교도 졸업 못 해

"뭐, 살아온 이야기 하자면, 심들었지요 뭐. 여기서 사는 게. 왜 그러냐믄 어려서는 이제 태어나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게서 그거 봐주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셨어. 안 보내가지구 친구덜은 학교를 가는데, 가고파서 못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보구 학교 가갔다구 그러니까 아일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아줌니가 있다가 인전 애두 다 크구 그랬으니까 그래두 뜨는 눈자락도 보여야 살지 그렇게 안 보내면 어떻허냐구 아주머니 보내요 그러드라구. 그러니깐 그러면 낼서부터 가라 그러시드라구.

그래 내가 아주 내발로 걸어서 갔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을 따라서. 그래 가가꾸서는 왜 왔냐 그래 선생이. 그래서 학교 대니러 왔습니다. 그러니깐 저 가서 마당에 가서 스라구 그러드라구. 그래가꾸 마당에 가서 스구선, 그래서 체조허구 그러구선 들어와서 이제 들와라 그러구선 이제 학생이 한 명 왔다 그러니깐 같이 잘 놀구 해라구. 공부두 잘 아르켜주구 그러라구 그러드라구 선생이. 그러구선부턴 그때서부턴 다닌 거예요. 학교를.

그러자 인제 열 살에 갔는데, 겨우 3학년쯤 다니니깐 6·25(전쟁)가 났잖아. 그래가꾸 못 배운 거죠. 그래가꾸 겨우 국문 글자만 아는 거지 뭐.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가꾸 책을 인제, 방공구뎅일 파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래 책을 가지구, 그 비행기가

뜨면 막 폭격하니까 몰래 몰래 인제 들어가구 책가방도 그 곳에 갖다 넣는데, 저 이북 사람들이 막 와서 저 방공구뎅일 들어가가꾸 책이 있으니까 가져가버렸어. 그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구. 그렇게 살았어요.

고생 무척했어요. 그 때 산 사람덜은.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 방공구뎅이 속에서 살았대니까요. 그러면 그냥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믄, 방공구뎅일, 우리네 들어간 자리가 아니구 딴 사람덜이 들어간 자리에 그냥 폭격을 해서 가까스로 쑤시구 나오구 죽은 사람두 있구 비행기가 폭격해서 타죽은 사람두 많구요 여긴 그랬어요. (그럼 여기 방공구덩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렇게 산처럼 비슷한데 있으믄 거길 파는 거야. 파가지구 그 속에들 들어가 있었어. 원래 저 넘어가 살았는데, 지금 여길 넘어온 거야. 집을 여기다 지어줘서. 아유, 고생헌 생각허믄 말두 못허지 진짜."

(2) 오빠는 6·25전쟁 때 보초 서다 이북 사람에게 끌려가 안 돌아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여기에 사신 건 아니구, 엄마가 여기에 살았어요. 강릉 김씬데. 아버지가 연천이 고향이신데, 엄마가 연천으로 시집을 가셨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만 죽어서 이곳으로 오셨대요.

동생 하나구. 오빠두 있었는데, 그 전에 보초 섰어요. 저기 방공호 파구선 그 산에 가서. 근데 방공구뎅이엘 가서 보초 스다가, 사복 입구 바지 저고리 입구 그러시다가 저기 사람들이 붙잡아 간 거야. 이북 사람들이 밤에. 그래가꾸서는 밤에 붙잡아 가서는 영 못 오는 거야. 영 못 와서 고만이지 뭐. 여기서 오빠한테서 조카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깐 오빠 하나, 남동생 하나, 조카 하나 우리 그렇게 식구가 없어요. 간단해요. 엄니 아버지 하구. 그런데 올해 3월에 동생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 인제는 나 혼자 남았어요."

(3) 여기선 모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여기서 막 절구질 해 먹구 살았어요. 그 전에 어머니가, 맨날 쌀을 찧어 잡숴야 되잖아요. 어디 나갈 수두 읎구 그러니깐. 베를 그냥 털어가지구 그냥 막 찧는거야 집에서. 그러면 그냥 우리 어무니하고 맞절구질해서 그냥 절굉이질을 했어. 어머니 찧구 나믄, 나 또 절굉이질 해서 찧구. 또 그러구 밀 같은 거 갈아서 갈아 먹구 그랬어요. 우린 고생 무척 허구 살았어요.

그 전에 논밭에 있는 거 다 심거서 먹구 그랬죠. 그래가꾸 그걸 어딜 가서 찧어올 수두 읎잖아 여긴. 꽉 맥혀 있으니까. 그래가꾸 다 찧어서 먹구 살았다구. 보리는 능거서 또 밥해 먹구. 보리는 또 능거서 밥해 먹어야 되잖아. (능근다는 게 뭐예요?) 절구에다가 찧어야 해요. 절구에다가 찧어가지구, 그거를 그냥 무네미라구 해가꾸 좀 널었다가 다시 또 물쳐가지구 찧구 그래가지구 살았어요. 그래구 밀두 심거가꾸 찧어서 맷돌에다가 갈아서, 갈루는 치구 또 막 거친 거는 그냥 막잽이라구 그거는 그냥 반죽을 개서 그것두 해서 먹구 그랬어요. 그 전엔. 그 전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여기선. 그래서 맷돌질이구 절구질이구 다 할 줄 알지.

그래가꾸 안 해본 게 없어. 베두 엄니 아부지가 비니까 같이 비구. 그래가꾸 베두 비구, 베두 여서 집이 마당까지 여 내리구. 또 민사처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 비료두 줬어. 그냥 준 건지 어떻게 준 건지 몰라. 줘서 그걸 이었는데, 한 푸대 이었는데, 목에서 삐걱 삐걱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고 다니구 그랬다니까. 이구 집에까지, 여기서 집은 또 저 넘어 있었어요 그 전엔. 그래가꾸 그걸 머리에 이구 집에까지 갔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 그 전엔. 고생들 무척했어요.

그리구 그 전엔 일주일만큼씩 민사처라는 데서 차를 대주는 거야. 대줘가지구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길 오면, 문상 갈려면 타구 나가구 사람덜이. 들어 올려면 또 그거 타구 들어 오구. 그러면 이 길이 그냥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그냥 먼지가 머리까지 눈썹까지 그냥 뽀얗게 끼는 거야. 안 지는 거야. 낭중에는 그냥 하두 그러니깐, 담요루다 쓰구 댕기구 그랬어. 그러면 애기를 가졌잖아. 그러면 그 차를 타면 미시꺼워요. 그러면 그냥 내려서 다 토허구 그래야 돼. 막 토허구. 노냥 그러구 다녔어. 휘발유 냄새나 가지구."

(4) 남편과는 연애로 결혼해

"남편이 군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도 찍접, 저 사람도 찍접 할랴구 그러니까, 우리 제네 아부지가 날 아주 꼭 자기가 찝어갈랴구 안 놨어. 그렇게 해가꾸서는 [권O순 : 집에 가서 아주 살았어.] 응, 그렇게 해가꾸서는 날 꼬셨어. 아유, 결혼이 뭔지두 몰랐으니까. 허긴 말해 뭘 해? 인물이 잘 생기구 그랬으니까 뵈기 싫지는 않드라구. [권O순 : 남편은 잘 생기셨어.]

응, 그래가꾸 애기 가졌는데 첫 애가 아들이야.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셋인데 벌

써 갔어요. 하난 벌써 저 세상으로 갔다구. 둘째가 저 세상으루 갔다니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구. 셋째두 아들이구. 아이는 전부 다섯을 낳았는데, 딸 둘은 갔어요. 하난 부천서 살구 개인 택시허구. 하난 여기서 농사 짓구. 셋째가 개인택시 허는 거야.
결혼해서 잠시 후방에 가서 살았지. 그런데 다시 들어와 농사 짓구 그냥 여기서 살은 거지. 논농사 허구 그저 깨두 심구구. 그 전엔 소루 갈았죠. 지금은 기계루 갈지만. 그 전엔 소루 갈았는데 묵은 논을 갈려면 소가 못 골어. 그러면 한번 가면 소를 또 때려야 해. 때리면 또 가구. 그렇게 해서 논을 맨들었어요. 그렇게 해가꾸 논이라구 쪼금씩 해가지구 농사두 쪼금 짓구 그랬드랬지. 근데 지금은 많이 기계루다 갈구 기계루다 허니까."

(5) 잠시 후방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

"여기는 잠시 나갔다 다시 여길 들어온 거예요. 나가서 장살 했는데, 여기 같이 있던 놈이 또 와서 그냥 웅웅 대가지구 돈을 2,000만원을 우리 할아배가 준 거야. 그러니깐 장사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깐 돈이 읎으니까 장사두 물건을 제대루 자꾸 해다놔야 되는데, 덜 대구 그러니까 차츰차츰 안 되는 거야. 장사가.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그냥 잡화 장사. 쌀가게두 허구 연탄두 팔구.
그래가지구 우리 애들두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두 안 두구 개네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믄 인제 주문, 누가 멫 장 갖다 달라 그러믄 그걸 주문, 멫 장 멫장 맡아놨다가 개네들이 오면 그걸 날르는 거야. 학교 갔다 와가꾸. 그러니까 공부시키러 나가가꾸 공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깐 그렇게 애들을 부려먹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연탄 날르는 사람을 두면 또 제대로 하지 않구, 돈두 지가 받아서 다 이렇게 쓰구 그러니깐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꾸서는 가게가 자꾸 줄드라구. 그래가꾸 가게를 다 팔아 족쳐가지구서는 도루 일루 들어오자구 그래가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두 무척 힘들었어요. 여기서 살다 나간 사람인데두 그렇게 안 들여보내주구 애를 먹였다구. (어디로 나가신 건데요?) 영등포. 서울 한국 타이어 있잖아요? 거기 새루 나는 거가 있어가지구 땅을 사가지구 집을 지어서 나간 거예요. (언제 나간 건데요?) 그걸 꼽아놓지를 않아서 모르겠네요. 애들 막내는 초등학교 있었을 땐데, 잘 몰르겠어요. 여기 집 헐리구 송파옥네 할아버지네 집에 이사 갔다가 거기서 바루 나갔잖아. 몇 년돈지 생각을 안해 놔가지구 아이들을 알텐데, 나는 몰르겠네요. 나가서 7년 있다가 다시 도루 여기루 7년 살다가. 72년돈가 92년돈가에 여기 다시 왔어요."

(6) 내가 고사를 안 해 먹는 이유

"아들 삼형제 쭉 낳구 밑으로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은 어렸을 때 죽었어. (왜요?) 몰라. 그래서 내가 고사를 안 드려 먹는 거야. 고사를 디리구선, 불을 켜놓았는데 그 불이 남포불이 되가꾸, 그게 벌불이 되가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애가 연기를 먹어서 그래서 죽구, 첫째 딸은. 그리구 하나는 돌 지났는데 백일기침이 걸렸어. 그래가꾸 그 백일기침에 그냥 돈을, 약을 써두 안 들어. 그래가꾸 금반지까지 다 팔어가지구 병원에 다니구 그래도 안 듣드라구. 그래가지구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꾸. (많이 우셨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구. 그 때 후방에서 돈을 다 까먹구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침하구 그러니까 반지까지 팔어서 했는데두 틀리는 거야."

(7) 남편은 명절만 되면 고향생각에 울어

"남편은 맨날 고향 얘기만 허다가 돌아갔는데 뭐. 자기 고향 못간대는 얘기지 뭐. 얼마나 애닯는 거지, 정월이나 팔월 추석이 되면 그럴 때 우는 거야. 더 생각나니까. 근데 난 안 봤으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드라구. 나는 시집살이는 안 허구 친정살이만 했어.
(아저씨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삼년 됐어. 해수가, 별나게 해수가 생기드라구. 벼베는데 갑자기 기냥 숨이 차서, 숨이 넘어갈 거 모냥 그래서 병원에 모시구 갔는데, 그게 해수래요. 그래가꾸 기냥 그 때는 나갔다 다 망해서 들어와가지구서는, 기냥 돈두 읎잖아. 그래가꾸 약을 제대로 못 써가지구, 그러니까 그걸 길른 셈이지뭐 그러니깐. 약을 제대로 그 때 바로 약을 질렀으면 살았을텐데. 나갔다 여길 다시 들어온 거예요."

(8) 도토리를 줍다가 이북에 끌려갔다 와

우리는 고생하며 산거밖에 없다고 해서, 신문에 도토리 주우러 갔다가 이북에 갔다온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다며, 그 이야기 좀 해달라 했더니 들려준 것이다. 마을회관에서 몇몇 아주머니들과 함께 있을 때 들려준 것이라, 이 분들도 이야기판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는 허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시작했다.

"그 사람덜두 우리 사람덜 허구 똑같에요. 그런데 인제, 군인만 좀 악척스럽게 그러는 거지. 우리가 거길 넘어가지두 않았는데 넘어갔다구 그러구 그냥 그래가꾸서는, 그 사람덜이 반시간 있다 보내준대 그러면서 가재는 거야. 그래서 난 못간다.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할머니가 나갔다 들어오면 밭에 갔다 인제 오셨냐 그러구 맨날 깍듯이 인사허구 응, 나갈 때는 안녕히 다녀오시라구 그러구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서 며칠을 어떻게 있냐? 못 간다구 그러니깐 반 시간만 있다 보내준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보내주지 않으면서도 괜히 반 시간 있다 보내준다 그런 거야. 그래가꾸 우리나라 하구 이북사람하고 회의를 해야 된대. 그래야 보내준대요. 그래가꾸 사흘밤을 잤어 거기서.

그런데, 가서 그 이튿날 하룻밤 잤어. 낼은 갈꺼냐 그러믄, 아이 어머니 쪼끔더 기달려야 돼. 그러믄 왜 반시간만 있다 보내준다구 그짓말한 거잖냐? 왜 그짓말을 해가꾸 사람을 끌구 오냐 말야. 애들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구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여기에 오셨으니 할 수 읎대. 거기서 회의를 해야만 보내주니깐 가만히 기달리구 있으래.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그냥 하룻밤 자구 또 하루잠 자구. 게 밥을 해다 주믄 밥을 도저히 못 먹갔어. 안 멕혀요 그냥. 그래가꾸서는 왜 그렇게 밥을 안 잡숫예, 밥을 잡숴야 살지 밥을 안 잡수면 돌아가면 어떻게 허느냐는 거야. 그래서 멕히지 않는 걸 어떻게 먹냐구. 안 멕히는데. 근데 풀때기밥 같으구, 죽 같으구, 못 먹겄어 아주. 배가 고프지두 않구. 분해서 그런지 배두 안 고파. 밥두 안 멕히구. 그래가꾸 맨날 굶었어요. 그러구서는 콩나물은 먹겄드라구 그래두. 콩나물 갖다 주니까 콩나물은 먹겄드라구. 그래서 콩나물만 먹으니까 낭중에는 한 그릇, 공기로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드라구. 밥은 안 먹구 콩나물만 먹는다구. 그럼서 아유, 어머님 저기 단 걸 좋아하시나봐. 그럼서 밥 허는 사람이 갖구와가꾸 아유 어머님, 그래도 진지 좀 잡숴야 돼. 그럼서 안 잡수면 어떻게 해? 그냥 병 나실까봐 걱정이지. 그래가꾸서는 그냥 먹구.

또 안 먹으니깐 야, 그럼 어머님 감 좀 갖다 드려라 그러니깐, 감, 그 때 감이예요. 가을이래서 감 딸 때야. 그래 감이 아주 한 낭굴 그냥 아주 노란 걸 놔 돟드라구. 한 낭굴. 보기 좋으라구. 그래 갖다 새긴 걸 좀 드려왔는데 떫드라구. 떫어. 그러구 그 배두 좀 갖다 드려. 그러니깐 배를 좀 가져왔는데, 난 그런 배는 생전 처음 봤어. 저렇게 저거마냥 길어요. 저렇게 긴데다가 가운데는 짤룩하게 들어갔어. 양짝은 이렇게 쪼금 뚱뚱허구. 그런데 아무 맛대가리두 읎어. 그런데 개네들은 그냥 씨채 막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씨채 막 먹어. 아유, 속으루 배가 무척 고픈가보다. 그래 개네들이 나 땜에 그런 거 갖다 주니까, 우린 안 먹으니까 그냥. 아유, 불쌍해. 오죽 배가 고프면 그걸 씨채 막 먹느냐구. 속으루 떫구 막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가꾸 또 왜 반시간 있다 보내준다 그러구 안 보내 주냐 그러믄 아이 글쎄,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래니까요. 보내드리는 건 보내드리니깐 걱정하시지 말래. 그래가꾸 내가 인제 아이들이 그렇게 맨날 나가믄 인사허구 들어오믄 인사허구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을 허겠냐구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즈네들이 썼어. 편지를. 즈네들이 써가지구 여길 가져왔어. 집에를. 집에를 갖다가 줬어. 그래니까 우리 할아버이가 혈압약을 보냈드라구. 혈압약을. 혈압약을 보냈는데 그걸 바루 갖다 날 줬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깐 게를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그 약 도루 내노래. 먹구 죽을까봐 그러는지, 그렇게 도루 내노라 그래서 도루 내놔줬다니까. 그래가꾸 올 때 줘 또. 올 때는 기냥 주드라구 그걸. 그래가꾸 올 때 줬는데, 내가 갖구 오다 떨어뜨린 거야 그 약을. 그랬드니 그걸 또 줏어 가지구 왔어. 저 판문점으루 해서 집에까지 보냈어 또. 그래 군인들이 갖구왔어. 그런 식으루다 허드라구. 정직하긴 무척 정직해요. 그 사람들두. 근데 그 군인에 대해서만 그냥 그게 저거 한 거야. 그냥. 거기에는 그냥 항시 감시하구 그러니깐 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드라구요.

그래가꾸 텔레비를 좀 봐두, 뭘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긴 왜 텔레비두 안 틀어주냐구 내가 그러니깐, 텔레비를 잠깐 틀어. 근데 그 뭐 빨간 글씨만 나오잖아요 거기는. 빨간 글씨루 써가지구. 보기 싫어서 그냥 아유, 알았다구 됐다구 꼬라 그래서 껐어. 근데 전기 때문에 못 키드라구. 전기를 후라시 따라 요런 거 두 개를 요기서 인저, 유리창에다 갖다 요렇게 해가지구선 켜놔. 고렇게. 유리창에다. 근까 빤짝빤짝 쪼금 비치는 거지. 얼굴이 뵐뚱말뚱 허게. 그렇게 살드라구. 불두 못 키구. 아이구.

그리구 그냥 세수수건두 왜 그 이발소에서 쓰는 수건 있잖아요. 그것두 그냥 때가 꼬질꼬질한 거를 하나 주는 거여. 그래서 우리 아범이 아, 이 수건 좀 하나 딴 거 달라구. 오는 날. 그러니까는 하나 갖다 줘. 그건 새 걸 가져오드라구. 글구, 세수비누두 그냥 다 닳아빠지구 그냥 이런 거 변한 거를 갖다놓구 쓰라구 그러드라구. 아유, 뭐 사는 건 말이 아니야. 심들드라구요.

(도토리는 많이 따셨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많아서 많이 줏었지요. 줍기는. 한 푸대 줏어 놨는데 아이들이 버리라 그랬대. 사람은 갔는데, 그까짓 거는 갖다가 뭘 하느냐구. 그래가꾸서는 그래두 안 된다구 군인들이 실어서, 차에다 실어서 집에 마당에다 갖다놔서, 마당에다 널어 논 거, 서울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셔. 시어머니가 작은

어머니, 제네 아버지 작은 어머니. 아직두 살으셨어. 작은 어머닌. 아흔이 다 되셨을꺼야. 그런데 여태 살으셨는데 그 양반이 울면서 까셨대요 또 그걸. 울면서, 사람은 없는데 이걸 가져왔으니 이걸 어뜩허냐구 그러면서 당신이 다 까진 못했지 뭐. 한 푸대를. 그 때 오셨댔지. 그래가꾸 그 때 난리두 아니었었대요. 나 가니까 또 우리 메느린 까무러치구 막 난리가 나구. (그러겠지요.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고요?) 그럼. 보통일이 아니잖아. 그래가꾸 또 왔는데두, 여길 왔는데 사람들 보기두 부끄럽드라구. 왜 그러냐믄, 너무 극성부리다가 거까지 가가꾸 잡혀갔다 오니까.

그래 오니깐 뭐 사람들이, 그래 올 때두 인제 낼 아침이면 가시니까 기다리라구 그러드라구. 그래서 인제 기다리구 있는 거야 인제. 올 때만 되구. 그러드니 와서 가자 그러드라구. 그래서 나오는데, 우리 아범허구 나하구 인제 둘이 갔잖아요. 아들허구. 그랬더니 둘은 침대가 있어. 거기. 거기 서서 사진이나 하나 찍구 가재.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두 찍은 거 여태 있어요. 여 갖구 왔어. 줘서. 그래가꾸선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구. 참, 웃기지두 않아. 별난 경험두 다했어.

그래가꾸 인제, 데불구 나를 오는 거야. 차를 타구. 근데 올 때는, 갈 때두 업구 가자구 그래서 건너 갔거든. 이렇게 빠지는 데가 많으니까. 그 빠져서, 막 논틀 밭틀 막 지나가니까 빠져서 갈 때는 가면 어딜 가서 이걸 다빨구 그래야 되잖아. 운동화 신었는데. 그래니깐 내가 업구 건느자구 그랬어. 그랬드니 날보구 사람들이 수단이 좋대는 거야. 업자 그랬다구. (권O순: 어떻게 업제? 글쎄) 그럼 업어야지 글쎄. 어떻게 가서 빠져? 어떻게 건너가냐구? 이걸 건너가며는 거 가선 어떻허냐구. 그러니까는 그런 거지. 그런데 저렇게 쪼그만 사람을 드리대는 거야. 군인을. 그러니깐 저 사람은 나 못 업는다구. 그 때 나 70키로 거반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 못업으니깐 저기 저 사람이 오라구 인제 그랬어. 좀 키 큰 사람. 그랬드니 그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드라구. 그래서 그 사람을 드려다 대는 거야. 그래서 업혀 건너갔대니깐. 그리구 또 업혀 건너가구. 또 업혀. 세 번을 업혀 건너갔어. 올 때는 또 글루 오는데, 또 업혀 건너가재는 거야. 업히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냥 걸어가두 된다구 그 때는. 안 업혀두 되잖아? 빠져 와두. 오니까. 그런데 그냥 자꾸만 업으래, 업히래가지구 업혀 왔어. 올 때두.

그래가지구 이렇게 기냥 아카시나무 있으니깐 이걸 기냥 젖혀주구, 막 가시나무 이렇게 젖혀주구. 그렇게 데리구 와. 올 땐. 조금이라두 다칠까봐 그러나봐. 걸키매구 그럴까봐. 아주 그냥 고렇게 깍듯이 기냥 길을 맨들어 주는 거야. (총으로 위협하고 막 끌고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그렇게 안 하드라구요.

그리구 그 사람들 보초막두 이렇게 열어서 기냥 들어가. 들어 갔어. 그래가꾸 개성으루 간대. 얼루 가녜니깐, 개성으루 간다 그러더니 그 땐 눈을 꽉 처매는 거야. 근데 그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울어지는 거야. 눈물이 나구 울어. 그냥. 그래서 거까지, 개성 다가도록 울었대니깐. 갖다 내려노니깐 눈물이 그래두 그쳐지드라구. 아유, 무서웠어요. 무척 무서웠어요. 그래 여기가 어디냐니깐 개성이래요.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렇게 갔다왔어요. 거기서 두부두 해주구 비지찌개두 해주구 다 해주드라구. 먹을 건, 잘 해주드라구. 사람들은 다 착해요. 거기두. 군인들만 쪼금 이렇게 악독한 기가 쪼끔 있지. 그냥 왜 그걸 악독한 기를 아냐면 갈 때 내가 못간다 그러면 어머니 갔다오면 되요. 그러면 되는데 막 끌구 갈려구 그러구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꽉 잡으니깐 옷이 그냥 탁 튿어지는 거야. 여기가 찢어, 튿어져. 이 옷이 오래 입어서 낡아서 잡아댕기니까 튿어지드라구. 이거 보라구. 내가 이렇게 옷 튿어졌다구 그럼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 가서 내가 다 꼬매드린대. 그런데 진짜 꼬매줘요 가서. 즈네들이. 그 옷 기냥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그냥 기념으로 나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사진 찍어야겠네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어디다 뒀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여기선. 아유.

그 도토리두 뭐 많으니깐 주워다가 해서 그전엔 팔면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깐 엄청 했어요. 그것두. 저 양반[권O순]하고 나하고 있잖아, 저 양반은 가진 손이 있었구, 나는 혼자 손이야. 저 양반은 30가말 줏었구 나는 열 가말 줏었다구. (아니 30가마를 주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저 양반이 그렇게 많이 줏구 나는 열 가마 줏었대니까요. 아유, 참. [권O순 : 그 땐 밥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30가말 주은 거야.] (여기 가까이에 그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아니, 멀리 가야지. 들어오는 데두 다 참나무잖아요. 그런 데두 다 댕긴 거죠. (여기 마을에 계시니까 아무데나 막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가두 괜찮구 해 주는 것도 없는 거야 거기는. 그러니깐 그 땐 또 도토리가 많이 열었어요. 도토리가. [권O순: 도토리가 별나게 많이 열었어요. 아주 쪼끄만 낭구라도 조랑조랑해서 빨갛게 떨어지구 빨갛게 떨어지구. 낭구 밑 구녁에 가면 줍는 거야 그냥. 참나무라믄. 좀 많아야지 참나무가 또.] 그 땐 아주 30가마 주은게 기록이야 기록. 돈은 뭐 어딜 갔던지 [권O순 : 돈은 어딜 갔던지 도토리는 재미있게 팔아보지는 못해. 뭐 재미있게 팔기나 했어? 지금 같으면 그 얼마나 많아? 돈이. 앙금을 했어야지. 겉도토리루 파니깐 돈이 안 되죠. 싸지.] 3,000원인데 뭘. 한 말에. 그런데 그 삼천원두 안 주구 또 기냥 가져가는 사람두 있어. 못 받구. (아유,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쁜 사람들, 아유.
(그럼 돈 되는 게 도토리 줍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깨농사, 콩농사, 벼농사, 또 뭐 있어요?) 그 전엔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면 버섯두 많이 났어요. 버섯. [권O순: 지금두 목이버섯이라구 잡채에 넣는 거, 그거 많이 땄어요. 참낭굴 비어서.] 그것두 팔아서 30만원을 다 했드라구. 그 30만원을 팔아가지구 장롱두 하나 사구, 또 요만한 단스두 그냥 두 개싸리 하나 사구, 화장대두 하나 사구. 그걸 팔아가지구 에이, 공돈 삼아 쓰자 그러구 그런 거 다 샀다니까요. 그건 낭굴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난 거야.
그래가꾸 이북에서 잘 얻어먹구 왔지요 오기는. 올 때. [김O순: 과일 나무 하나 가져왔잖아. 근데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 그거. 감나무. 감나무 하나 허구, 감 허구 배 허구, 병배허구 한 박스 담아서 줬어요. 저기 그 군인들은 뵐 때까지 전달해 주구 갔어. 그 사람덜이 시상에 흙을 이렇게 달아서 그냥 그 무거운 걸 거까지 져다 줬다니깐, 아유. 고맙지 뭐. 그게 높은 사람덜 말에 무서와서 들고 왔갔지, 그게 어떻게 들구 오냐구. 걸어오구 막 그러는데. 차 타구 무척 많이 걸었어요. 차 타구 내려서.
(그 감나무가 살았으면 진짜 기념비적인 나무가 됐을텐데 아깝네요.) 기념인데, 그게 고염이 되드라구. 안 열어. (맞아요. 그게 접을 안 붙이면 고염이 되긴 하지요.) 고염이 되드라구. (그래도 어쨌거나 고염나무가 돼도 대성동에 기념비적인 게 됐을텐데 아깝네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김O순 : 가져온 게 기념이 됐을텐데] (그럼요. 대성동의 상징이 되는데 아깝네요.] 무척 많이 커졌을꺼야. 지금 살았으면.
근데 여기 오니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래 검사를 더 많이 해. 우리가 붙잡혀 갔다 왔는데, 무슨 정부나 따라갔다온 거 마냥 디려캐구 그냥 난리쳤어요. 그래가꾸 내한테는 늙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들한테는 아주 심하게 했드라구. (그래도 살아서 잘 돌아오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구 복 받았다구 그래요. 복 받았다구. 그 사람들이 보내줬다구."

3) 강릉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육십 년, 권O순 씨

[1934년, 81세, 개띠, 안동 권씨, (남편 故 김O래 씨/1933년생)]

권O순 씨는 1934년 생으로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최고령자다. 휴전이 되기 직전인 1953년 6월에 당시 태성[대성동]에 살고 있던 남편 강릉 김씨 김O래 씨와 결혼하였다. 고향은 대성동에서 매우 가까운 나리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감바위에 살 때 태성으로 놀러 다니시면서 손녀 사윗감을 눈여겨보았다가 중매를 하였다.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시작하여 한평생 시집살이를 했지만, 묵묵히 견디며 2남 4녀를 잘 키워냈다. 현재는 분가한 두 아들에게 농사일을 넘겨주고 쉬고 있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권O순 씨의 생애사를 통해서는 어려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한 집안을 지켜낸 강인한 한국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속은 조사자들의 말이다.

(1) 난리 중에 가마도 없어 걸어서 시집으로 와 혼인식을 하고

권O순 씨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내가 음력 칠월 열엿새 날에 온 거지 여기에. 중매로 결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엔 여기가 마을이 쪼끄맸어요. 여기 볼 거 없었어. 지금 여기 집 지어놔서 이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길 내리 댕기셨어. 그런데 내리댕기시면서, 우리 손주딸이 있으니까 중매 좀 해 달라구 그래가꾸서는 지[제]가 이리로 시집을 오게 된 거야. 내가 열아홉 살인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나이가 많으면 펄쩍 뛰시구 야단덜 나잖아요. 노처녀라 그러구. 어서 시집보내라 그러구 그냥. 그래 우리 친할아버진데, 친구 양반이 여기 계셔서 여길 내리 댕기시다가. 그런데 어느 날 시집보내라 그러시면서, 여길 내리댕기시다가 저기 허시는 거야. 아, 그래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마땅한 데가 있으면 아버님 말씀 듣구 그렇게 허지요 그러구 허락을 허신 거야. 그래가꾸서는 내가 여기루 왔는데, 내가 그러니깐 6·25나구 일사후퇴 지나구 휴전협정 헐 때, 허기 전에, 미처 허지 못허구 났는데, 그냥 막 총 쏘구 붙들어 가구 그럴 제야. 인민군들이 막 올라오구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서 시집 보내라구 시집 보내라구 그래가지구선 이리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나 열아홉 살이야 그 때가. 열아홉 살이구 우리 영감님은 스무 살이구. 나보다 한 살 더 잡숴어. 그래가꾸서는 진짜 결혼식이라구 여름에 결혼식을 했어. [김O순: 족두리 쓰구 했어.] 뭐 말할 것두 없죠 뭐. 부끄럽수다요 진짜. 지금 그런 시대가 어딨어 그냥.

선을 봤갔어뭐? 선 한번 그냥 와서, 우리 시어머니가 오셔서 시작은어머니허구 시어머니허구 오셔서 보셔 가지군 그냥 혼사를 허신 거야. 허자구 그래서. 그래선 그냥 사주라구 뭐 그냥 보재기에 싸서 가지구 오셨더라구 우리 양반이. 아유, 그래가꾸서는 뭐 남자 선을 봤갔어요뭐, 시어머니만 와서 보구, 우리는 신랑은 우리 할아버지만 보셨갔지. 여길 내려댕기시니깐.

그래가꾸서는 정말 혼사를 허게 됐는데, 무슨 가마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 것두 읎지. 그래가꾸는 그냥 여기를 걸어 왔어. 시집을 걸어 왔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허셔가지구 그냥 걸어 왔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두 못해. 그런 혼사가 어딨냐구. 그래서 와서, 시집이서 와서 자구, 결혼식을 시집에서 와서 자구 헌 거야. 그래두 쪽두리는 쓰구 결혼을 했어.

신랑은 잘 생겼어요. 우리 영감님은 잘 생겼습니다 아주. 남에게 빠지지 않구. 그런데 일찍 가셔서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그건. (신랑이 처음에 딱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들었지 마음에 들긴. 나야 뭐 해가지구 오는 게 있어뭐, 맨 몸으로 오는 건데. 전쟁 때, 안에서 뭐 강 건너 가기를 해 뭐 옴짝, 통 다 맥힌 건데 뭐. 개인은 아주 움쩍두 못허구 군인덜이나 댕기는 건데, 그 때 결혼식을 했으니. 아주 아무 것두 못 해가지구 왔지.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식으루. 구식으루 인제, 그냥 치마 저고리 입구 쪽도리 쓰구, 그렇게 허시드라구덜. 집이 남자네, 남자는 딴 집이서 옷 입구 오구. 집이서 인제 그렇게, 내집이락두 내집에서 나오지 않구 다른 데서 옷입구 와서 올리더라구. 예식을. (남자가 사모관대도 쓰고, 말도 타고 와요?) 그럼. 그거 쓰고. 말은 안 탔지. 옆에서 옷 입구 나온 거지. 난리 시절인데 말이 어딨어? 어유, 내가 다 감바위에서 걸어왔는데, 말은 해 뭘 해? 부끄럽지 진짜.

(그럼, 결혼하실 때 남편은 군대 안 갔어요?) 군대는 안 갔어도 여기서 군대생활을 했어. 여기서. 아, 저눔덜 총 쏘구 그래서 저녁이믄 보초 서구 그냥 그렇허구 살았어요. 무섭게 살았지요 뭐 산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스럽죠. 그 때에다 대믄. 평화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그 냥반이 집 지어 준 거야. 사는 거. 이거[마을회관]는 아니고. 우리네 사는 집덜. 그 냥반이 지어 주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냥반이 지어주신 거예요."

(2) 시집 오자마자 시할머니의 오줌똥을 받아내기 시작해

"오니깐요, 그냥 시할머니가 이만해[팔을 양쪽으로 벌림]. 이 양반이 방안에서 꼼짝을 못허구 오줌똥을 다 받아내는 거야. 내가 오니까 나한테만 다 그걸 맽겨서 야, 아가야 불르면 그냥 오강내가라 나 오줌 눴다, 똥 눴다, 그냥 그런 걸 다 말씀을 허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 또 내가 그걸 가지러 가서 부셔다가 드리구. 으례 오줌똥 누는 건 나만 불르는 거야 그냥. 시할머니가. 이만헌 마누라가 앉아서. 시어머니는 아니구, 시할머니가 그렇게 뚱뚱헌거야. 이만한 얼굴이 둥글넓적헌 마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 그러니뭐 나야 뭐 허래는 대로 할 뿐이지. 옛날에야 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김O순 : 지금은 그러면 안 살아.] 아이구, 세상을 그렇게 보냈수다 진짜. 막 하라는 대로.

(시집 오셨을 때 식구는요?) 식구는 많지 않아. 시누 하나. 외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꼼짝두 못허구 그냥 돌아가기 전에 손주며느리 보구, 손주 보구 진손주 본다구 어서 장개 보내라 장개 보내라 졸랐대. 그래서 보낸 거래. 아유, 스무 살짜리를 보낸 거지 뭐. 나도 열 아홉이구. 그 때만 해도 스무 살이래두 다 가는 걸루 알았어요. 그 때 시대에는. 지금은 애기루 알잖아 그냥. 지금은 애기루 알지. 지금은 가는 사람두 읎구. 저희끼리나 진짜 연앨 걸면 스무 살 아니라 열아홉이라두 갈까? 지금은 어디 있어 그런게. 다 서른 넘구 그냥 (지금은 진짜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자식이 너무 늦어 진짜. 갈 땐 가야지. 안 갈거 아니구 갈 땐 가야 돼.

그래가지군 진짜 시집이라구 오니깐 아유, 진짜 그 치다꺼리는 다 해야 하는 거야. 빨래, 뚱뚱하셔 가지구, 저고리 품이 이만해. 이게 한 자야. 그러면 말두 못해 넓어서. 치마두 치마허리를 달믄 이만허게 말두 못허게 넓어. 넓은 거야. 기장은 앉아서, 앉아서만 뭉기작거려 그냥. 앉아서. (시할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한 육십여 살 되셨갔지요 뭐. 난 그런 건 기억안 해. 나 와서 첫아이 낳으니까, 첫 아이가 돌 되니까 돌해 잡숫구 돌아가셨어. 아이구. [김O순 : 그런데 서울 가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요. 서울 가서 돌아가셨어."

(3) 텔러가 내쫓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지금까지 살아

"그래가지구선요, 여기서 텔러라는 기관이 있었어. 기관이. 그 때는 여기 집두 진짜 허술허구 그런데, 옛날 초가집이지 뭘. 그런데 기관이 있어가지구선, 텔러라구 그 기관이 들어왔드랬어. 그 기관들이 또 들어와서 있다가선 내쫓는 거야. 내쫓아서 여기서 안 나간다구 안 나간다구 그랬는데도 내쫓으니깐 나갔다. 나갔으면 뭘 해? 다시 들어오래니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 도루 들어왔지. [김O순 : 노인네들 13집만 남았어요.

그 때 그래서…] 그리구 여기 저기 총알이 그냥 땅 땅 치구, 저 똥그란 산 거기서 인민군들이 살아가꾸서는요, 거길 바깥에를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지금은 평화야. 평화야. 지금은 그 때 시대에다 대믄. 그 때는 또 후방도 출입못 했잖아요. 후방 출입을 못 해가지구 그냥 집안에서만 감금당하구 살았는데요 뭘."

(4) 피눈물 나게 겪었던 시집살이들

① 아이 낳은 지 열흘만에 절구질을 시작해

"시집 와서 아이 낳은 지 열흘 만에 절구질을 이틀을 했어. 쌀을 찧어 먹는 거. [김O순: 여기선 방앗간도 못가구 집에서 찧어 먹었어요.] 물두 길어다 먹구. 지금 허면은 아마 죽는다 그럴 거야. (물은 어디서 길어다 드셨어요?) 우물에서. 동이루. 그렇게 시집을 살았을까 진짜. [김O순: 아침을 해 먹구 나면은요 가마로 하나 가득 실어다 놓으면 또 점심 해 먹어.]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스럽게 사는 거죠. (자녀분은 몇 분 두셨어요?) 저요. 많지요 뭐. 그 때만 해도 뭐, 어떻게 못 날 수 없고 낳게 되고 낳게 되고. 아이는 가지게 되니까 여섯이예요. 육남매예요. 아들 둘에 딸 넷."

② 시누와 시어머니가 시킨 시집살이

"시누 노릇은 좀 허는 줄 알아? 그 효창 공원에서 물 길어 오믄, 그거 맨날 내가 지구 대녔어. 그러니까 식구가 몇 식구야.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람덜이 효창공원에 있는 사람덜이 아유, 새애긴, 나더러 새 색시니까, 스무 살짜리니까 새 색시지 뭐. 스물두 살이니까. 아유, 식구 멫 식구나 되는데 이렇게 혼자만 물지갤 맨날 혼자만 지구 다니슈–. 그냥 딴 사람은 안 지구 당신만 만날, 나 더러 인제 나더러 댕긴다구 인제 그러는 거야. 누가 한번이라두 들어다 줘? 그걸 내가 만날 같이 지구 댕기는 거지. [홍O순: 그걸 오빠가 들어다 줘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 그건 신문사엘 댕긴다구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어딨어? 아유, 말두 못해. 그 생각허믄 이러저러.

또 그 소리 내가 안했지 내가. 아유, 읍성 해주면 저의 집에서 뭘 해가지구 왔다구 치마 저고릴 해주냐 그러구 못해주게 해. 자꾸. 한번은 그 민나이롱, 그걸 아부이가 한벌 끊어서 해서 가져왔는데, 그걸 왜 해다 줬네. 그래구 울구 야단했어. 아유, 말두 못해. 내 그런 생활했어. 그런 소릴 들을 때는 아주 진짜 그냥.

그리구 신랑 있을 때 싸우구 저 그거하군 그냥 나한테다 분풀이를 허구 별짓을 다 했어. 날 글쎄 아일 안구 있는 거를 그냥 머리챌 잡아가꾸 엎어놔. 그랬드랬어. 아유 내가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안 했지. 지나간 소리 그까짓 걸 해서 뭘해? 아유 말두 못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니집엘 좀 내려왔지. 내려와서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가구 있다가 한 댓새 있다가 올라가니까 아이 동섭이지 뭐, 젤 큰 아일 델구 올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너, 이년 올라오믄 머릴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다구 이러셔. 아유–, 우리 어머니. 경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드래니깐요. 그래 그렇게 야단을 허셔.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대. 올라오니까. [홍O순: 친정에 갔다오니깐?] 그러게 휘딱 안 올라오구 저희집 가서 그렇게 오래 있었다구. 일주일 한 이주 있었으니–. 이년 오믄 그냥 머릴 망망 튿어놀라구 그랬다구. 그러셔요. 아유 말두 못해. [홍O순: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하는 거야 그냥.] 아유, 그럼.

시어머닌 백 살 살으셨지. 약두 안 쓰셨어. 기운도 좋으셔. 생김이 얼마나 튼튼허게 생기셨어. 약 하나 안 잡숫구 백 살 살으셨어. (당신으로서는 큰 복이시네요.) 백 살 사는 사람은 약을 안 먹어야 백살 살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약을 하나도 안 잡숴어. 무슨 뭐 혈압약을 잡숴어? 당뇨약을 잡숴어? 무슨 뭐 보약을 잡숴어? 그 전에 삼은 많이 잡숴다는 얘긴 들었어. 그 전에 여기 삼포했을 때. 옛날에. 개성서 인제 여기 들어와서 했을 때. 삼은 여기 삼이 최고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가꾸서는 그 삼덜은 많이 잡숴대나 봐. 그래 그런지 다른 건 잡순 게 없어 아주. 약두 한 번두 안 드시구 가셨어요. 백 살에 진짜.

백 살까지락두 꼭 기면서라두 댕겼어. 손주네가 저기 있잖아. 근까 손주지? 손주라면 이렇게 생각하구 맨날 그냥. 손주라면 그냥 기어서락두 가서 손주네 가 일 해 주시느라구 그냥 가시는 거야. 도투리 따오면, 손주 며느리가 도투리 따오면 도토리 까서 주구. 그걸 까서 팔아서 돈 맨들라구 팔아서 그냥 일을 도와주시는 거야. 체대가 아주 많이, 선을 보러 왔는데, 우리 작은어머니하고 나를 선을 보러 왔는데, 아유, 키가 구척 같은 마누라가 둘이서 그냥 아우, 무섭구 그냥, 우리 작은 어머니도 좀 커? 그냥 이런 마누라가 둘이서 와서 들어서더래니까. 난 뭐 고개도 하나 못들구 난 요렇커구 그냥. 아유 세상에 체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드니 그렇게 오래 살으셨어요. (그럼 아저씨도 그렇게 크셨어요?) 키 커요. 건장해요. 인물도 좋구. 남한테 빠지지 않아요. 체대가 좋아요. 우리 시아부니도 체대가 좋으시구. [김O순: 그 냥반은 한량이었잖아, 한량.] 그 양반은 뭐 말두 못해. 근데 인제는 다 돌아가셨어."

③ 시아버지가 시킨 시집살이

"(한량인 시아버지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힘들죠. 내가 휘딱 술상을 안 차려 내온다구, 휘딱 술 안 가져온다구 술 항아릴 막 배깥으루 막 팽개쳐. 내 챙피지만 이런 소릴 허믄. 아, 그렇게 무섭게 굴었어. [홍O순: 챙피하긴 뭐, 그 양반이 잘못한 거지 무슨 챙피야 그게.] 그렇게 사납게 굴어. (그럼 집에 누룩 만들어 두셨다가 매일 술 담그셨겠어요?) 그렇죠. 그럼. 약술. 튀겨가지구서두 허구. 누룩 술 허구 약술허구.

(약술은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약술은 쪄가지구 그걸 버무려요. 밥을 식혀가지구. 약을 거기다 쏟아가지구 그냥 골고루 섞어지라구 비벼가지구서는, 튀겨가지구서는 하얗게 인제 튀겨지면 인제 그걸 [홍O순: 그래가꾸 자루에다 집어너서 뜨듯한 곳에 놔둬. 그러면 그것이 하얗게 튀겨져요. 그런 다음에 인제 물에다 쏟아붓고 인제 항아리에다 붓구서는 인제, 또 이시도[이스트]두 있어. 그것두 좀 넣구 그렇게 허구서는 물을 좀 붓구 그렇게 해 놔야지 물 많이 허면 싱겁구] 너무 물 많이 잡으면 술이 독허지가 않아. 그래서 어느 정도 잡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허지. 약은 술 허는 약이 따루 있어. 그 전엔 민간에서 따루 팔았어요. 그래두 술은 누룩술이 더 좋잖아요?

어른들 다 돌아가니깐 편안합디다. 만산에 헐일 없수다. 지금덜은 시집만 오믄 저희들끼리 나가 살잖아요. 우리 며느리들두 오자마자 나가살아서 부자됐잖아. 큰며느리 나갔다구 작은메느리두 나가갔다구 허니까 또 내보냈잖아. 그래 우리두 영감님허구 어머님허구 나허구 셋이서 살다가 돌아가니까 또 어머니허구 나허구 둘이 살았지 뭐야. 둘이 살다 어머니 돌아가니까 나 혼자 살지 뭐. 마음은 제일 편안해. 있으믄 먹구 읎으믄 자구."

(5) 한량인 시아버지, 외아들인데도 빚만 물려주고 돌아가셔

"(시집 오시니까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한량이예요 아주. 한량이 돼서 뭐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피난들 다 나가구 남자들만 농사질꺼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관리를 다 하시니까 농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군차가 들어와서 후방출입을 한 거야. 그렇게 하믄 쌀을 저 후방에 가서 베를 가지구 나가서 찧어서 금촌에서 팔으시구, 거기서 당신이 다 저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당신이 다 쥐구 허니깐 우리네는 그냥 일만 헐 뿐이야. 뭐 쓸 줄이나 알어 뭘. 뭐를 써? 어디 나갈 줄을 알아, 갈 줄을 알아? 여기서만 있구, 어르신네들만 출입을 허니깐, 돈 맨지는 거는 어르신네가 다 허시는 거지. 그러니깐 바보지 뭐. (옛날에는 다 그랬지요 뭐.) 지금으로 생각허믄 아주 바보루 생각한다니깐. 그렇게해가꾸 우리 시아버지가 살림을 죄 휘둘러서 하셔서 꼼짝두 못허구, 이 영감이 한량이 돼서 그냥 후방에다가 집 사놓구 그냥 첩 얻어가지구 살구, 첩네 살리구, 아유, 말두 못해. 우리 시아버지 말씀하면 뭐 첩마누라 허면 아주 뭐 살세드야. 나두 왜 밉지두 않은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인제 금촌에 가는 거야. 첩네 집이를. 그 집이를 가믄 아유, 어멈 나왔냐 그러구 아주…. 근데 왜 밉지두 않냐 왜? 나는 또, 거길 댕기구 그랬수다. 그러니까 어떤 이 동네 마나님이 날더러 이러는 거야. 자네는 그 속 안 상한가? 뱃속에 똥만 들었나봐, 나 같으면 못살아 이러는 거야. 그래는데 어르신이 무서운데 어떻게? 어른이 허래는 대로 해야지 뭘 어떻게 하냐구.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환갑 다 해 잡숴어. 후방에서. 후방에서 집을 사 놓구. 후방에서 그냥 차리구서 다 해 잡숴어. 여기서는 아무 것두 못허구 거기서 나가서. 거기 가서. 금촌에서. 첩마나님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차려가지구 다 해가지구.

그렇허다가 저기 신림동, 그 때 신림동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개발되니깐 거긴 인제 땅이 저거 하니깐, 거기다 땅을 사셔가지구 집을 지신대. 그러니깐 첩네 다 살린 거야. 그렇게 해가꾸 외아들인데도 돈도 못 물리구 돌아갔어. 다 그쪽으로 갔어요. 당신이 다 팔아가지구 한량 노릇했어요. 외려 외아들인데도 빚 물려주고 돌아갔어. 그래 돌아가실 때 금상 복구된다, 꼭 복구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싰어. 일흔 셋에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 시어머니는 백 살에 돌아가셨구. 돌아간 지 오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아이구 난 그렇게 세상을 다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앞세셨어 또. 우리 영감님이 예순 하나에 돌아갔어. 나 육십이구. 우리 영감님은 예순 하나구. 세상 싫다구 먼저 갔어요. (시어머님은 그러면 백 살 잔치도 하셨어요?) 아유, 그 해에 돌아가셨어.

(시집 오니까 부자셨어요?)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지 그 때는. 다 피란 나가서, 그 때 삼백 가마면 부자지요. 그 때 삼백 가마면 부자지. 왜냐하면 다 나가고 몇 집 안 남았으니깐. 피란들 나가구. 그래서 그 땅 가지구 그냥 우리 아버니가 하셨으니깐. 그래서 집두 사구 별거 다했는데, 당신이 다 날리구 돌아갔어. 외아들 뭐 돈 하나 못 물려주구."

(6) 세상에 힘든 것은 장사일

"우리 아부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고상을 해서, 장사가 제일 심들다는 거야. 시상에 삼일장을 드리는데 이틀밤 사흘밤을 잠을 못자니까요. 세상에 뭐 아주 젊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못해요. 세상에 사흘밤을 못자구 일을 허니까, 그리구 또 병구완을 했잖아요. 그렇허다 돌아가셨는데 글쎄, 세상에 그냥 일을 허다 말고 동네 여편네들은 버섯 딴다구 다 동산으루 빼구. 그거 부셔서 저녁밥 해대구 그러느라구, 그리구 저녁에 쓰려져서 자구, 또 그 이튿날은 뭐 하느라구 또 일찍 일어나지, 아무튼 장사 드리구서는 그 이튿날은 하루 죙일 잤어요. 내가. 삼오제도 그냥. 아유, 못 배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가 제일 심든지 알아요.

근데 인저는 심들 것두 없어. 다 저 장례예식장으로 가니깐. 지금덜은. 벌써 죽었다허믄 그리가니 뭐. 뭐 집이서나 죽어요? 다 저 요양원들 다 가서 병원에 덜 있다가 돌아갔다 그러믄 그리로 가야해. 누구네든지 다 인젠. 돈이면 그만이야 인젠. (지금 말씀하신 게 시아버지 때예요? 아니면 시어머니 때예요?) 지금 시아버지 때. 우리 시어머니 때에는 지금 큰며느리가 있잖아.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다 있어서 나는 안에서만 있었어. 심들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 때가 우리 시아버지가 73에 돌아가셨거든. 73이구. 지금 내가 여든 하난데. 심을 따져보면 아는데 휘딱 이런 사람은 되질 않아서 그래. 그 때는 다 행상쳤지요. 우리 어머니도 행상하구요. 멀리 안 가셨어."

(7) 농사 지어 자식들 여섯 명 다 교육시켜

"(그럼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들 여섯 명 다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네. 시집 보내구 장가 보내구 이젠 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사신 지가 육십 년이 넘으셨네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여든 하나니까. 휴전선 안에 내가 여길 왔구 시집 오면서 휴전선이 됐지. 그 해에 휴전선이 된 거야. 그 해에 내가 오면서 휴전선이 됐어요.

(농사는 뭐뭐 지으셨어요?) 논농사도 하구 밭농사도 하구 했는데, 이제는 다 물려주고 난 일 안 해요. 옛날에는 내가 많이 했지요. 깨도 심구, 콩도 심구 뭐 안 심은 게 어딨어? 다 숨었지. 깨 아홉 가마까지 해봤는데. 그걸 매려면, 지금은 비닐이나 씌지요. 그 때는 그냥 발로 숨어 가지구, 허미루다 맨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헌거예요. 6남매. 그 때는 그냥 소루 갈구 그렇게 했지요. 허미루 심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럭 그냥 맨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깨를 털어서 가마니 했어. 몇 가마 몇 가마 지독,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들 공부두 가르치구 그랬지. 저희들이 대학은 안 간거야. 저희들이. 우리 딸 하나만 대학가구. 내가 뒤를 댈 수 없으니까, 아래 아이들은 너희들이 고등학교만 나오너라. 내가 어떻게 뒤를 댈 수가 없다. 그러다 막내만 대학 2년제 나오구 또 둘째딸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지가 가서 대학을, 내가 가서 대학을 시험이나 보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드니 시험보고 와서 집에 그냥 있으니까, 들어갔냐 그러니까 아이 몰라요 엄마. 그냥 시험은 봤어요. 그러더니 아니, 전화가 온 거야. 김영희 학교 붙었다구. 전화가 온 거야 핵교에서. 그러니까 게 하나 대학 나오구, 아들놈들은 대학은 저희가 싫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배. 아들 둘인데, 그놈들 다 대학두 못 나오구 고등학교만 나온 거야. 2년제 대학 하나 나오구, 4년제 대학 하나, 성신여대 나왔구. 둘은 다 저희둘이 싫어서 공부도 안 했어.

(보니까 고추농사가 돈 많이 벌던데요.) 그 때는 고추농살 못했어. 그 때는 질지두 모르구, 땅에다가만 씨 뿌리고 숨어서 먹을 거만 했어. 그 때는. 근데 지금덜은 개화가 돼서 들 저렇게 허죠. 그 때는 그거 없었어. 우리 농사짓고 살 때는. 그냥 벼 하구, 콩 하구 깨 심구 그러구 살았어. 그렇게 해가지구 살았어."

(8) 조산 냇물에서 외손주가 돌미륵을 캐

"(그 때 왜 돌미륵 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좀 혼자 됐어요. 우리 딸두. 그래가지구선 우울증이래는 병이 있어가꾸, 그러니까 동생덜이 우리 언니 죽으면 어떻허냐구 데려온 거야. 여기다 문산에다. 데려다 노니깐 자꾸 들락거렸지. 내가 들어오게 맨들어서. 패스를 내가지구.

그래가지구 들어와가지구선 또 손주눔이, 게 손주눔이 있는데, 할머니, 할머니 물가에 가서 괴기 잡아, 괴기 잡아 그래니깐, 그거를 말을 듣구 불쌍허니깐 저두 그걸 데리구 그 땐 그냥 조산이래는 냇물에 가서 괴기 잡는다구, 쪼끔 올마냥 그 해두 물이 없으니까 가물었어. 그 해두. 벌써 몇 년 됐지. 가서 그냥 개울에 가서 그걸 팠어. 팠대요. 그러니깐 떨그럭 떨그럭 소리가 나는데, 무서운 생각이 나는 데두 에이, 뭐 있갔냐 이렇허니깐 그게 나온 거야. 둘이. 그래 거기 또 하나가 거기 있다구. 또 있을 거라구덜 그러는 거야. 그러는걸 아이, 그까짓게 뭐냐 그만 둬 그랬지. 올해 가서 캐보면 알꺼야.

근데 올핸 안 가지. 누가 가. 거길.
그래가지구 갖다 노니깐 이장이 알구선 저 시에다 말한 거야. 그래가지구 거기서 와서 가져갔더랬어. 가져 갔다가 그냥 있다가 내가 가져오라 그랬지. 왜 안 가져오냐구. 가져오라구 그랬더니 얼마만에 가져왔더라구. 갖다가선 딸한테 아이 너희 집에 갖다둬라. 니가 얻은 건데 뭐, 산 것도 아니고 얻은 건데 뭐. 거기서 도루 보내줬으니까 가지구 있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되갔지 그래구선. 그래 가지구 문산에서 살아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서 인저 식당에 다녀요. 홈프라스 직원이 뭐 백 명인가 얼마 되는데 거기 밥해. 약 먹고 그냥.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인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아주 인제 약 끊고 일 댕겨. 아유, 그냥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외손주딸년 하난데, 아들 하나 하고.
외손주딸년은 거냥 나는 또 왜 애를 그런 학교에 넣냐? 그런 학교에 왜 넣냐? 엄마 지가 그리 간대는데 어떻해요? 예술학교. 저거 나가는 거. 그 아이들 춤추고 뭐 그러는데 거기루 댕기는데 아, 입성 하나만 백만원이 들어간 대는 거야. 게가 서울에 있구 내가 이따금씩 올라가면 백만 원짜리를 해야 한다고 그런 데를 들어갔어. 백만 원이야. 엄마, 백만원이야 그래. 니가 그걸 어떻게 가르킬려고 거길 들어갔냐? 다른 델 학교에 갈 일이지. 거기만 가갔대요. 거기만 가갔대는 걸 그럼 어떻해요? 그냥 지가 밴대니까 가르켜야지 어떻해요. 그냥 아주 억척스럽게 가르켰더니 인저는 아주 그냥 딸의 덕을 봤어요. 딸의 덕을 봐가지구 집두 사구. 딸이 지금 크게 됐어요. 학교 선상, 교사 선상으로, 아주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대학원 나와가지구 예술학교 그 학교에 저기 교감인가 뭔가 되고, 아주 춤추는 학원인가 뭔가도 내고 아주 잘 됐어요. 강남에 하나 내고, 인천에 하나 내고, 시집이가 인천이거든. 게서 인천에도 하나 내고. 그래서 딸의 덕을 보구 잘 풀렸어요 아주. 외손주 딸이. 어멈이 고상을 했어두 딸의 덕을 보구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외할머니 용돈도 좀 드리겠죠?) 그럼요. 진짜 오면 주지요. 한 달에도 두 번은 내려오나 봐. 오면 엄마 돈 주고 가구. 엄마 돈 주고 가구. 즈이 조카놈 그냥 입성 다 갖다 주구. 아이, 그걸 다 대는 거야. 돈을 물쓰듯 써. 아주 잘됐어요. 잘 됐어."

(9) 어머니 때문에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

"(어렸을 때 친정이 어디세요?) 친정이 요 가까운 곳인데, 선적이래는데 살았어요. 선적.

진선면 선적. 거기서 사는데, 그래가꾸서는 6·25(전쟁) 나구 자꾸 총질이 오구 저기 되니깐, 우리가 요기 감바위라는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살으셨어요. 요기 군인 회의장소고 너머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사는 동네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있다가 여길 온 거지.
나는 공부 못했어요. 내가 못헌 거는 우리 친정어머니 땜에 못했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내가 맏딸이 돼서 아일 보지 니가 학굘 어떻게 대니느냐는 거야. 저기 진선학교 큰 핵굔데, 이학년으로 내가 가서, 쪼끄만 학굘 댕기다가 펄펄 뛰시고 그냥 못 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는 엄마가 책가방을 그냥 아궁이엘 쳐넣겠다구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못 가게 야단허시구 그러시니깐, 동상이 셋인데 그걸 아일 업어주구 그러라구. 그래선 공불 못했어요. 아이구, 내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 줄 몰라. 공불 못해서. 우리 아부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래서.
그러시구 우리 친정어머닌 그래두 같이 계시다가 우리 친정 어머닌 또 후방으루 피란을 나가셨잖아. 가족이 다. 그 땐 아주 동네가 다 피란을 저 놀뫼라구. 저기지. 그러니깐 통일촌 지나서 왼손편 짝으로 가면 거기 놀뫼라구 있어요. 거기 가서 사시다가 어머니는. (그럼 친정분들은 전부 거기서 사세요?) 예. 올케는. 밑에 동생의 색시가.
내가 남동생만 셋인데, 지금 하나만 살아 있어. 하난 수류탄, 소 꼴비러 갔다가 수류탄을 가지구 장난해서 즉살을 해서 금방 갔어. 그냥 말두 못하구. 한 이십 살 돼서. 그냥 죽었어. 그렇허구 둘 살아 있었는데, 아파서. 하난 나이 먹어서 장개 가서 암으로 해서 죽었구. 그리구 하난 저기 사는데 지금 예순 아홉이야. 내년에 칠십이야. 내년에 칠십 한대니까 지금 아홉이지. 친정은 동상 하나 살구.
어머이가 그래가지구 공불 못했대니까요. 내가 그러잖아. 항상 나는 어머이 때문에 공불 못했어. 그게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 시대는 공부 못허면 바보 아니예요? 몰르니까. (공부했으면 뭐가 되고 싶으신데요?) 아유, 되구 말구가 뭐, 그냥 갑갑헌 거나 면하잖아요. 언문이나 다 알믄. 떠듬떠듬 아니까 뭐 확확 읽질 못허잖아. 구구법도 내가 그냥 배워가지구 내가 허구 다닌 거야. 핵교에서 배지도 못허구, 우리 어머니가 공불 못허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잘 사셨어요. 자식도 많이 낳으시구. 또 잘 되었고.)
근데 언젠가 놀러갔는데, 그 때 간 데가 어딘지 몰르갔는데, 거길 가니까 이렇게 진열을 해놨드라구 진짜. 그렇게 진열해 놓은 델 도는데, 진선면이래는데 늘목이 거기가 있어. 거길 내 이렇게 들여다보니깐. 아유, 그래서 내가 반갑드라구. 우리 고향 저기가면 저기니깐 반갑드라구. 아유, 우리 동네 그전 늘문리라구 늘목이는 저기구, 늘문리는

여기거든. 그런데 여기 우리 동네 여깄네. 진선면 여기 늘목이가 여기 와 있네. 아유, 왠 일이야. 여기 있네. 여기 글씨봐. 여긴네. 여기다 적혀 있네. 아유, 있드라구요. (그래도 글자도 다 읽으시고 학교 다닌 거나 똑 같네요.) 아유, 그까짓거두 못 읽으면 아주 바보지. 지금 시대에. 거길, 글씨를 그걸 보니까 우리 고향땅이라 그렇게 좋드라구요. 그 지도에 다 있대이. 거기에 있드래니까. 지금은 이북이 됐잖아. 거기 지금은 이북일꺼야. 진선면 이북이 됐을꺼야. 지금 선적두 이북인데 뭐. 이북 됐는데. 우린 쬤겨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여기 감바위에 살아서, 감바위 작은 어머니네로 우리가 온 거지. 와서 살았지. 6.25(전쟁)겪구 나서 와서 한데 있었지. 고기 있다가 이리로 시집을 온 거지."

(10)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지금은 혼자 살아

"아들들은 고등학교만 어떻게 나와 가지고 농사지어요 다. 다 여기서 있는데, 나는, 저희들이 따로 살겄대. 결혼시켜 노니까. 그럼, 그래라. 너희끼리 살아라. 그러구서 다 시간냈어. 집 사가지구서. 시간내서 여기서 살구. 나는 저기 큰집이서 살구 혼자.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

그리구 작은 아들도 큰 아들 저렇게 시간나니깐 아이, 메누리가 사내를 볶는 거야. 저녁이믄. 따루 나가게 해달라구 그러라구. 아, 그러니까는 엄마, 맘이나 편안하게 살게 따루 나가 살게 해달라구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또 영감더러 내가 얘기를 했지. 어떻허냐구 맘이나 편안하게 살게시리 엄마 따루 내달래니 어떻허냐구 따루 냅시다. 그리구 또 집을 샀어. 또 사서, 그것두 그리 냈어. 그래 저기 살구 여기 살구 지금 그래요.

지금 부녀회장이 우리 메느리야. 그런데 말두 못해. 우리 메느리. (신O식 씨요?) 일두 말두 못해 우리 메느리. 이 동네서 따라갈 사람 하나두 없어. 그러니까 셈두 잘 하구 일두 잘하구 말도 못해요. [김O순: 아들 둘인데 벌써 아파트 다 사놨어.] 시간 나서 진짜 뭐…. (여기 집값이 비싸요?) 집값 없죠 뭐. 여기 빈 집 많아. 다 나가서들 살잖아. 애들 공부 가르키느라구. 그놈의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빈 집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위에는 농사가 많구, 작은 아들은 여기서 농사 짓다가 걷어부치구 저가서 매운탕 장사해요. 문산에 가서. 매운탕 장사가 괜찮대. 메느리는 메느리대로 벌러 댕기구 아들이 해요. 맛있다구 소문 났어. 찌개나라라구. 이름이 찌개나라야."

(11) 손녀딸 덕분에 꽃다발도 다 받아 봐

"우리 아들은 순진해요. 손주딸이 요즈음 미국, 어떻게 진짜 부끄러운 소리지만 또 이 소리두 또 해야지. 손주딸이 둘인데, 아들 손주는 하나구. 둘째 아들 몸에서는. 근데 이것두 다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구, 돈이 적으니까 난 대학 못간다구 저희들이 돈 벌더니, 어떻게 허드니 다 사낼 저희들이 생겼어. 그래가지구 미군을 사귔어. 어떻게 재주두 좋아. 그러드니 글 쎄 몇달 여기서 살드니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살드니 5년 만에 올해 여길 왔어. 올해 와 가지지구선, 집은 안 사구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친정에 와서 2층에서 지가 자구. 엄마 아빠는 아래층에 있구. 그러믄서 이듬해 미국으로 도루 갈 때나 간다구 엄마한테 여기서 몇 년 있게 될러는지, 미군은 지금 회의장소 거길 들랑거리드구만. 노란기를 달구. 둘째 아들의 큰 손주딸이. 그 음식허는 거두 다 배왔어. 거기 가서 아주. 그렇게 해가지구서는 지난번엔 괴기두 이만큼 사가지구와서는 할머니네두 다 대접을 한 대. 그 미군 손주 사위가 그냥 다 와서 그냥 허구.

난 꽃다발두 다 받아봤어. 왔다 그래서 나두 인제 보러 나갔거든. 문산에를. 손주딸두 그렇구 손주사위두 다 왔다 그래서. 아이 보러 가야겄어. 난 생전 못 보는 줄 알았더니 보는구나. 니가 미국으루 갔으니까 난 못 볼 줄 알았다, 못 볼 줄 알았어요. 미국으로 갔으니까 정말. 그러드니 글쎄 5년 만에 와 가지구선, 왔다 그래서 보러 나가니깐 글쎄 꽃다발을 해다 놓구 줘. 그리구 내가 가니까 꽃다발을 주는 거야. 아이 이게 뭐냐? 생전 꽃다발을 다 받아봤구나. 내가 꽃다발을 다 받아봤다니깐. 아유 그래가지군 글쎄 지가 그냥 괴기를 많이 사가지구 와서는 파티를 여는 거야. 고모덜 다 오라 이렇게 해가꾸 파티를 여는데, 그렇게 잘 허는 거야. 괴기를 사러 갔는데, 그 괴기는 맛있드구만 정말. 괴기가 맛있어서 많이 멕히드라구. 아유, 그러더니 오더니, 할머니, 그 저 차 타구 댕기는 거 난 돈을 내고 댕겼거든. 그 사위가, 손주사위가 표, 카드도 주구, 나를 그것두 다 주구. 기름 사라구 돈을 주구. 아, 글쎄 그러드라니깐. 그렇게 잘 하드래니깐. 밉지를 않아. 미군이라두 뵈기 싫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한국사람 비슷허게 생긴 것 같기두 허믄서두 하얗지두 않아. 아주 옥설 같지두 않아. 키가 크지두 않구. 근데 괜찮아. 이렇게 보기에두. 밉지를 않아. 근데 요즈음 나가요. 여기서 자구 사흘 일 한대. 사흘 일 하믄 인제 여길 와 있어. 여 와서 있다가 또 일하러 가서 JSA에 가서 사흘 또 살구, 또 이리루 오구 그래.

또 작은 손주딸은 또 그건 뭐야, 지금도 요만 허게 놓구서, 콤퓨타 그걸 치구 어떻게

만난 거래. 근데 그것두 그렇게 미국말을 잘 허구, 난 어떻게 우서운지. 공분 많이 안 했어두 다 그래도 어떻게 남자들은 잘 만났냐구. (예쁘게 생겼나 봐요.) 딸 괜찮아요. 훤출한 기집애가 늘씬해 아주. 아이구 그렇게 미국말을, 가진 말을 잘 하네. 사위두. 손주사위가 그것두. 우스워서 죽갔어 그거. 어떻게 사귔는지 모르겠어. 그건 아이 둘을 났어. 연년상으루. 근데 이건 아이두 안 낳구 있어 지금. 우리가 아이 하나 나라, 나라.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 아이 나 뭘 해? 우리는 이렇게 재미있게 살꺼야 그냥 이래. 그래두 야, 하난 낳아야 돼. 못써. 아이가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두 처음엔 그래두 이 댐에 어떡해? 이 댐에 뭐, 이 댐엔 이 댐에 대루 또 살게 되는 거지. 거기는 미국은 저거래면서요. 늙은이 사는데 따루 있구 뭐 저거 있어서 괜찮대네. (노후에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봐요 아마. 안 가져. 아이두 안 가졌어요 여태. 안 생기는지, 안 가지는지 아이가 없어."

(12) 지금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혼자 사신다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나는 이렇게 내가 농사를 못지니까 큰 아들한테 그랬지. 너희가 다 맡아라. 맡구, 할머니 살아서 주든 돈을 줄여서 주고, 나 식량만 주구, 암만 가마만 다오. 백 가마 주든 거 반만 주구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그렇게 허는 거야. 식량 대주구 용돈 주구. (용돈 얼마나 받으세요?) 용돈 300만원. 일 년에 300만원. 먹을 건 대주구 그렇허지. 그리구 다른 아이들도 주구 해서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돈은 못 뫄났어. 자식덜 가리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드라구요. 살다 보니까. 자식덜이 잘 되나가니까 괜찮아요.

(그럼 벼농사는 몇 마지기나 하신 거예요?) 아유, 그건 누가 머리썼나? 나는 땅에 대해서 평수는 안 봤지. 많았지 많기는. 자식덜 다 노나주구두 내가 500가마 농사턱을 가지구 있다가 내가 못 짓게 되구 영감님 돌아가니까 아덜을 줬지. 큰 아덜을 줬지. 그리구 나 백가마만 다오. 그리구 할머니가 돌아갔으니까 반만 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살아나온거죠 뭐.

(관광은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간데는 뭐, 미국은 못갔어요 나는. 저 제주도 갔다오구 중국 갔다 오구. (아저씨 살아계실 때 같이 가셨어요?) 돌아간 연에 갔어. 그 때 저기 동남아 6개국 나라에 가자 그랬는데, 못 갔어요 돈 댐에. 진짜. 6개국 나라에 사람들 다덜 갔는데, 난 못 갔어. 나는 남이 빚 은어가지구는 안 간다, 남의 빚 은어가지구 무슨 구경을 댕기냐 허구 안 갔어 나는. 이 동네 사람덜 다들 갔는데 난 안 갔어. 그래서 그런데 안 갔어도 뭐 정말, 별거예요? 여기서는 빚이락두 얻어 가야 구경하지.

우리 큰 아들네도 농사가 많구 그러니까 괜찮게 살구, 손주 며느리도 보구, 진손주도 보구 다 했어요. 우리 손주는 대학원두 나오구, 다리두 놓구 뭐 그런 거 하는데, 토목과 나와가꾸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 자본으로 지가 해요. 그런데 잘 헌대요. 즈이 어멈이 그러드라구. 잘 돼요 어머니 걱정마세요."

(13)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산에 묻어 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지만, 권O순 씨가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기록하기로 한다.

"시아버지 때 행상쳤지요. 우리 어머니도 행상하구요. 멀리 안 가셨어. 나두 죽으면 난 여기, 아부이 산에 쓰라 그럴텐데. 난 화장 싫여. 난 아주 지금 까놓구 얘기해. 난 화장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 죽어서 예미 불구덩이 속에 왜 들어가? 내 산이 있는데, 난 영감 옆으루 간다 내 그랬어요. 아들들 더러 그랬어요. 내 지금 쌈 날까봐 미리 아주 짖어. 내가. 사위덜 한테두 그러구 인제 내가 아주 그러구 죽을꺼야.

장례사에서 거기서 해가꾸, 행상은 관둬. 행상은 관두구 차루 와라 내 그럴 꺼예요. 아주. 행상두 관두구 차루 해서 아부지 앞으로 갖다다우. 나 그럴꺼야. 왜 내가 화장 속으루 들어가냐? 불 구덩 속으루 들어가냐? 영감 산소가 여 있는데. 불구덩이 속으루 안 들어갈꺼야. 지금두 난 그래요 아주. [홍O순: 안 들어간다 그래두…] 안 들어간다 그래두? 자식이 여럿인데 뭐 한 아이가 화장하자 그러면 화장하나? 다같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 어머이가 그러구 돌아갔으니까 우리 아버이한테 모시자 그러면 되는 일인데.

그리구 구뎅이 파는 것도 돈 주구 파. 난 동네 사람들 쓰지 말아라 그럴꺼야. 내가 그 돈 해놓구 죽을테니까 사람 사서 해라 내 그럴 꺼예요. 난 아주 까구 해 있어 지금 내 속에. (돈 안 해 놓으셔도 돼요. 자식들이 여럿인데요 뭐.) 글쎄 어찌 됐든. 돈 많이 들으면 메느리가 좋대요? 아이구, 난 그러구, 무슨 굿을 해라 절에 가라 그런 소린 안 해. 그 소린 안 하구. 난 화장은 싫다, 아버이한테 가겠다 그건 그렇게 얘기해요."